

청송

재 중 조선인 총련 합 회
旅中朝鮮人总联合会

2026년

08

루게:29

<http://www.lzchongsong.com>



차례

CONTENTS

혁명활동소식

- 01---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해방 81돐경축 국립교예단 종합 교예공연을 관람하시였다
- 03---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해방절에 즈음하여 불멸의 기념비들을 찾으시고 항일혁명렬사들을 경건히 추억하시였다
- 04---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해방 81돐에 즈음하여 해방탑을 찾으시였다
- 05---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창립 80돐을 맞는 국립교향악단 창작가, 예술인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 07---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 진행
- 08---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9기 제2차회의 진행

총련합회소식

- 09---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산하단체들이 꽃바구니를 보내였다
- 09---조국해방 81돐 본부일군들 행사진행
- 11---조선외국문출판사 심양2026동북아문화전람회에 참가
- 12---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전원회의의 기본정신에 대하여
- 14---반향문
- 17---국제친선전람관을 참관하고
- 18---초심을 잊지않고 사업하는 지부장
- 19---경제인의 사명감을 자각하고
- 20---노래배우기

조국소식

- 21---조국해방 81돐을 각지에서 뜻깊게 경축
- 22---문화정서생활기지들에 차넘치는 인민의 기쁨과 량만
- 23---동해기슭의 아름다운 경관-락원포
- 24---제7차 전국3대혁명소조기술혁신전시회 개막
- 24---평양시려객운수종합기업소에서 새 축전지빠스로선구축사업 추진
- 25---나라의 농기계공업발전을 견인하는 금성트랙토르공장
- 26---첨단육종기술을 우리 식으로 확립
- 27---논판양어정책이 안아온 호뭇한 결실 재령군 삼지강농장에서
- 28---우리 선수들 제 1 1 차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3개의 종합우승컵과 7 5 개의 금메달 쟁취
- 30---《삼지연료리전시회-2 0 2 6》 진행

동포소식

- 31---함빈 관광열기에 활력 불어넣은 조선족민속문화 대잔치
- 33---제5회 전국성인조선어시랑송콩클 성대히 열려
- 34---장춘시조선족로인협회 설립 39돐 경축대회 개최
- 35---축수의례로 가풍 이어간다... 화천현 성화촌 팔순잔치

중국소식

- 36---네팔과 중국의 국경지역에서 거대한 붕괴로 대규모자연재해 발생
- 36---당신이 가장 관심하는 양로보험 전이 및 접속 문제, 권위적 응답!
- 38---로보트, 인류의 세계기록 재차 돌파
- 38---八一南昌起义

조중왕래

- 40---王亚军巡查并祭扫肃川郡、文德郡中国人民志愿军烈士陵园
- 41---中国驻朝鲜使馆和朝鲜外务省举办友好交流活动

국제소식

- 42---우크라이나문제해결의 유일한 선택
- 42---이란, 호르무즈해협 립시 항로에 관한 합의 도달
- 43---국가의 핵심리익을 굳건히 수호해나가는 중국
- 44---AI 대화로보트, 인간보다 설득 잘해
- 45---일본제국주의의 패망
- 47---프리드리히 엥겔스

상식

- 49---애국명장 리순신
- 51---말소리흐름과 문장의 발음
- 52---인도네시아
- 54---우리 나라에서 성은 언제부터 써왔는가
- 56---비타민의 발명이야기

련재소설

- 57--- 장편소설 립 꺾 정

앞표지:조국해방81돐경축 무도회 진행



입술연지



제품생산단위: 조선화장품무역회사

용량: 3g

효능: 사용감이 산뜻하고 쉽게 지워지며 입술이 하루종일 마르지 않고
광택을 유지하게 하여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해방 81돛경축 국립교예단 종합교예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위대한 우리 조국의 신생을 긍지높이 떠올린 뜻깊은 날을 맞이한 인민의 기쁨과 환희가 온 나라에 차넘치는 속에 조국해방 81돛경축 국립교예단 종합교예공연이 8월 16일 평양교예극장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김정은동지께서 극장관람석에 나오시자 열화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라 장내를 진감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귀중하고 신성한 우리 조국에 대한 진함없는 사랑과 우리 위업에 대한 자신심과 락관을 안고 전면적발전의 새시대를 창조해가는 온 나라 인민들과 전군의 장병들에게 조국해방 81돛에 즈음하여 따뜻한 축하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항일혁명렬사, 반일애국렬사유자녀들, 혁명학원 교직원, 학생들, 성, 중앙기관, 무

력기관 일군들, 시안의 공장, 기업소 일군, 로력혁신자들, 청년학생들이 공연을 보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악되였다.

공연무대에는 국제교예축전들에서 최고상을 수여받은 체력교예 《쇠바줄타기》, 《날으자 더 높이》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풍만한 정서와 약동하는 생기가 넘쳐흐르는 우아한 민속교예 작품들과 난도높고 세련된 교예종목들은 날로 개화발전하는 우리 교예예술의 면모를 잘 보여주었다.

우리 인민들과 친숙해진 요술가가 펼치는 특색있는 작품들은 관중을 신비로운 요술의 세계에 심취되게 하였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아슬아슬함과 경탄, 유쾌한 웃음의 련속으로 이어진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출연자들의 공연성파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따뜻이 축하해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훌륭한 공연으로 조국 해방절의 환희와 랑만을 더해준 국립교예단 창작가, 예술인, 일군들을 만나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국립교예단은 지난 70여년간 세계적인 교예작품창작과 적극적인 공연활동으로 우리 인민의 사랑을 받으며 국가의 영예와 위상을 빛내여온 관록있는 예술집단이라고 하시면서 교예예술특유의 감화력으로 사회주의문화발전에

기여하여온 창작가, 예술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국립교예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비상한 창작적재능과 높은 기량, 애국의 열정을 다하여 시대와 인민이 반기는 훌륭한 교예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공연함으로써 교예예술의 새로운 발전과 전성을 안아오리라는 믿음과 기대를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끝)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해방절에 즈음하여
불멸의 기념비들을 찾으시고
항일혁명렬사들을 경건히 추억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해방 81돐에 즈음하여 8월 14일 대성산혁명렬사릉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지도간부들과 당중앙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위원회, 성, 중앙기관 책임일군들,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악되였다.

화환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김정은동지의 명의로 된 화환이 혁명렬사릉의 화환진정대에 진정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체 참가자들과 함께 조국의 자주독립과 룡성번영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고귀한 생을 바친 혁명렬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시였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의 분렬행진이 진행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국과 후손들의 운명을 책임진 숭고한 사명감으로 온넛을 불태우며 천신만고의 피어린 항전으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고 존엄을 되찾은 첫 세대 혁명가들의 견결한 자주정신과 불멸의 공적은 후손

만대에 이어가야 할 사상정신적재보이며 고귀한 혁명유산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사들이 지녔던 공산주의에 대한 아름다운 리상과 투철한 혁명신념,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은 오늘 선렬들이 념원하던 룡성번영하는 강국을 건설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투쟁행로에 영원한 생명력을 부어주고있다고 하시면서 투사들의 숭고한 혁명정신과 고결한 인생관을 대를 이어 계승해나가는 위대한 조선인민의 위업은 영원히 필승불패할것이라고 확언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어 항일혁명렬사추모비를 찾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실현에 공헌한 유명무명의 항

일혁명렬사들에 대한 숭엄한 마음을 안으시고 추모비에 꽃송이를 진정하시교 묵상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영웅적투쟁을 형상한 3인군상과 수많은 렬사들의 이름이 새겨진 비문판을 보시면서 조국과 인민의 존엄과 자유를 찾기 위해 꽃같은 청춘을 혁명에 바친 그들의 시신은 이름모를 산야에 흩어졌어도 그 장한 모습과 위훈의 자욱은 청사에 력력히 새겨져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천만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백두의 혁명전통을 창조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준 조선혁명의 개척세대가 승승장구하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진발전과 더불어 가장 높은 명예와 존엄의 단상에서 영생하기를 기원하시였다. (끝)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해방 81 돌에 즈음하여 해방탑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해방 81돛에 즈음하여 8월 14일 해방탑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지도간부들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국방성의 책임일군들이 동행하였다.

해방탑앞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로씨야련방 국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악되였다.

화환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김정은**동지의 명의로 된 화환이 진정되였다.

화환의 땡기에는 《쏘련군렬사들의 공적을 우리는 잊지 않는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우리 인민의 해방투쟁을 위하여 용감히 싸운 쏘련군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동행한 간부들과 함께 해방탑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의 해방을 위한 성업에 더운 피를 바친 붉은군대 장병들의 전투적위훈을 경건히 추억하시면서 우리 인민은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이 땅에 고이 깃들어있는 려사들의 고귀한 념과 그들이 발휘한 영웅적희생정신을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로사이의 훌륭한 력사와 전통, 혈연의 뉴대는 오늘 량국 친선협조관계의 근본초석으로, 무진한 원동력으로 되고있다고 하시면서 숭고한 리념과 진정한 전투적우의로 맺어진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위대한 친선단결은 전면적개화의 새시대와 더불어 대를 이어 굳건히 계승발전할것이라고 확언하시였다. (끝)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창립 80돛을 맞는 국립교향악단 창작가, 예술인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8월 8일 창립 80돛을 맞는 국립교향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을 만나시고 축하격려하시였다.

뜻깊은 창립정주년에 오매에도 몸가까이 뵈고싶던 **김정은**동지를 극장에 모시는 최대의 소원을 성취하게 된 전체 창작가, 예술인들은 크나큰 감격과 환희에 휩싸여있었다.

김정은동지를 모란봉극장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군들과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 문화상 현은철동지, 국립교향악단 책임일군들이 정중히 맞이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극장중앙홀에 들어서시자 고대하던 행복의 순간을 맞이한 창작가, 예술인들의 걱정이 열광의 환호로 분출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사랑하는 우리 조국과 빛나는 력사를 함께 하여온 영광과 긍지 속에 창립일을 의의깊게 기념하는 국립교향악단의 전체 창작가, 예술인들을 열렬히 축하하시며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일성상을 수여받은 지휘자 허문영동무에게 축하의 꽃다발을 안겨주시고 주체교향악발전에 공헌한 자부속에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를 지닌 창작가, 예술인들을 따뜻한 한복에 안으시고 뜻깊은 화폭을 남기시였다.

전체 창작가, 예술인들은 창립 80돛을 맞는 악단에 축하서한을 보내주신데 이어 대해 같은 은정을 거듭 베풀어주시는 자애로운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을 심장깊이 새기고 보다 적극적이며 진취적인 예술창조활동으로 주체교향악의 영예로운 발전사를 줄기차게 이어나갈 불같은 결의를 담아 우렁찬 환호성과 총성의 구호들을 터쳐올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공화국의 발전행로에 혁명의 노래, 열정의 음악을 투쟁과 창조의 진군가로 높이 울리며 주체음악예술의 화원을 풍부히 해온 국립교향악단과 같은 훌륭한 력사와 전통이 있고 높은 창조실력을 갖춘 예술집단을 가지고있는것

은 우리 당과 국가, 인민의 크나큰 자랑으로 된다고 평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우리 국가부흥의 위력한 추동력으로 되는 음악예술을 발전시키는데서 권위있는 국립교향악단은 마땅히 견인기적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식 관현악의 장중하고 특색있는 울림이 우리 혁명에 더 큰 고무격려를 안겨주고 새시대 음악예술발전의 전성기를 주도하게 될 때 우리의 위업은 보다 거대한 힘과 총천한 활력속에 승승장구하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장장 80 성상 애국에 열렬하고 예술창조에 성실한 자기의 본태를 한점 흐림이 없이 견결히 교수해온 악단에 대한 우리 당과 인민의 기대는 참으로 크다고 하시면서 국립교향악단이 주체음악의 발전상을 체현한 국보급예술단체로서의 지위와 명함을 빛나게 이어나가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끝)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9 기 제 4 차 정치국 확대회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력사적인 당 제 9 차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5 개년 계획수행의 첫해인 2026 년도 중요정책과제들의 성공적집행을 담보하는 정치실무적대책들을 보강하기 위하여 8 월 25 일 제 9 기 제 4 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소집하였다.

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으며 내각 부총리들과 주요상들, 국방성 지휘관들, 당 중앙위원회 해당 부서 책임일군들이 방청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회의를 지도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먼저 당중앙위원회 제 9 기 제 1 차, 제 2 차전원회의가 결정포치한 올해 중요정책건설대상들의 추진정형과 주요경제부문 사업들의 현 실태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당대회결정판철의 첫해부터 국가사업전반에서 새로운 발전단계에로의 이행을 과시하는 중대한 변화와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는데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완강한 분투와 노력으로 쟁취한 값비싼 성과들이 루적되고 지난 시기보다 더 방대한 계획사업들이 구상되고있는 오늘의 시점에서 투쟁의 목표와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 확실한 실천으로 이어갈수 있는 과학적이며 효율적인 실행담보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중요하게 언급되였다.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당대회가 제시한 방대한 전망목표들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데 있어서 관건적인 올해 투쟁의 성격과 의의가 다시금 상기되었으며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를 비롯한 경제지도기관들과 당중앙위원회 정책지도부서들이 비상한 책임성과 고도의 신중성을 발휘할데 대한 문제가 강조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국가발전의 폭과 심도, 전망목표의 방대성에 있어서 미증유의 창조투쟁이 전개되고있는 시대적특징과 현실적요구에 맞게 성과와 경험을 장려하고 교훈과 해결책을 부단히 도출해내는 원칙에서 올해에 계획된 사업들의 드림없는 완결과 단기적, 중장기적인 과업들의 실천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조정과 적시적인 대책안들을 검토하였다.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국가경제지도기관들이 변화된 환경과 의연 복잡다난한 조건과 애로들을 용의주도하게 책략적으로 극복하며 특히 중요정책대상건설사업에서 집중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원칙들과 일련의 방침들이 포치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대회결정집행과정에 발로된 일련의 편향들을 지적하시면서 이는 우리의 높아진 리상과 강해진 전진력에 정비례하지 못한 경제지도기관들의 미숙한 작전과 지휘능력의 후과로서 새로운 각오와 투쟁의지로 분발할 때 능히 극복할수 있고 해소할수 있는 결점들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방면에서 새로운 혁신과 변화, 경이적인 장성속도를 견인해야 할 중임이 우리 지도간부들의 어깨우에 지워져있다고 하시면서 전당의 당조직들이 백사천사를 사상사업으로부터 출발할데 대한 당중앙의 불변의 요구에 맞게 대중의 정신력을 남김

없이 발양시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보다 공세적으로 드세게 벌려나갈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 우리의 전진보폭은 전례와 한계를 초월하는 비상한 용기와 분투를 요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제9기 당중앙위원회가 내세운 변혁의 목표들은 단순히 실무적인 계획수자가 아니라 국가의 존위를 지키며 우리 제도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중대한 정치투쟁과업으로 된다고 언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결정판철의 조타를 틀어잡은 일군들이 오늘의 하루하루의 성과가 우리의 가속화된 전진과 발전을 상징하고 그것이 그대로 인민의 복리증진으로 이어지게 된다는것을 항상 자각하고 올해 투쟁을 반드시 승리적으로 결속함으로써 새로운 전망목표수행의 활로를 개척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끝)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9기 제2차회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9기 제2차회의가 8월 29일에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회의를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최근 조선로동당 조선인민군 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의 정치군사활동에 대한 평가가 있었으며 차후 국방사업전반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일련의 조직기구적개편안들이 토의되였다.

회의에서는 조직문제가 토의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고문 박정천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조선인민군 보위국장 유광우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조선인민군 공군 정치위원 엄주호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할데 대하여 승인하였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주요직제군지휘관들의 직무변동문제를 심의하고 당중앙위원

회 정치국의 비준을 받는데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고문 박정천동지를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보선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 노광철동지를 해임하고 당중앙지도기판에서 소환하여 당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제1부 부장으로 임명하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김성기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으로 임명하였다.

조선인민군 보위국장 유광우동지를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으로, 조선인민군 공군 정치위원 엄주호동지를 조선인민군 보위국장으로 임명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새 직무에 착수하는 주요지휘관들이 우리당의 강군건설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군사로선과 방침판철에서 무한한 헌신성과 비상히 높은 활동성으로 맡은 자기의 역할을 책임적으로 다해나가기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였다. (끝)

위대한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산하단체들이 꽃바구니를 보내었다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조국해방 81 돌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재중조선인청년협회가 꽃바구니들을 보내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에 13일 꽃바구
니들이 진정되었다. (끝)



조국해방 81 돌 본부일군들 행사진행



조국해방 81돛을 맞으며 재중조선인총련합회본부일군들과 심양시지부공민들이 본부에서 기록영화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18》을 시청하였다.

시청에 앞서 먼저 조국방문기간에 《김일성, 김정일기금》에 기금한 심양시공민들인 려순자, 류창환, 류명길, 김명선, 김영실공민에게 《김일성, 김정일기금》 증서 수여식을 진행하였다.



시청에 앞서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리순남제 1 부의장이 발언하였다.

그는 주체조선의 존위와 명예가 반만년력사이래 최고의 경지에서 떨쳐지고 있는 시기에 우리들은 조국해방 81돛을 맞이하였다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사상의 기치높이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 성취하신 조국해방업적은 우리 인민이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쥐고 조국의 귀중한 모든것을 무궁토록 수호하고 빛내어나가는데 있어서 영원한 재보로 되고있다고 하면서 위대한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찾아주신 공화국을 굳건히 지키고 오늘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영원히 받들어 애국사업과 재중총련사업을 사명감으로 일해나가자고 말하였다.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며 조국해방의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신 만고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수령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참가자들의 가슴속에 넘쳐있었다. 백두산밀영에서 일제와 싸우며 유격대밀영생활을 하던 항일유격대원들의 생생한 자료들에 참가자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길림육문중학교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동상에 조국해방 81돛에 즈음하여 8월 14일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중조선인녀성협회, 길림시지부, 재중조선인청년협회, 재중항일혁명투쟁연고자 황백하가족, 길림성송화국제무역유한공사, 주해원세수출입 무역유한공사 류홍, 연변복두무역유한공사 박광현, 연변회리공업무역유한공사 우치리의 명의로, 심양주재 우리나라 총령사관에 모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상사진문헌에 재중조선인총련합회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었다.

조선외국문출판사 심양 2026 동북아문화전람회에 참가



심양시 신세계박람관에서 진행하는 심양 2026 동북아문화여행 창의박람회전람회에 조선외문출판사가 참가하였다.

전람회는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과 지도원들, 심양시공민들이 외문출판사 전시대를 주의 깊게 돌아보고 일부 출판물을 구매하였다.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제 9 기 제 2 차전원회의의 기본정신에 대하여

지난 6 월 20 일부터 22 일까지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 9 기 제 2 차전원회의에서는 당 제 9 차대회가 제시한 전략적과제들과 새로운 5 개년계획수행의 돌파구를 열어야 할 관건적인 2026 년도 당 및 국가정책집행형용을 중간총화하고 하반기도 사업중심과 투쟁방향을 확정하며 사회주의건설전반을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궤도에 올려세우는데서 절실한 현안문제들을 토의결정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전면적발전기를 개척한 지난 5 년간의 투쟁이 그러하였던것처럼 새로 시작되는 5 년간의 투쟁도 역시 전적으로 우리의 주체적력량, 우리 인민의 위대한 힘에 의거할것입니다.》

전원회의에서 상정토의된 의정들은

1. 2026 년도 주요당 및 국가정책집행형용중간총화에 대하여
2. 석탄공업을 추켜세우며 전국의 탄광마을을 개변시킬데 대하여
3. 시, 군인민위원회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조치에 대하여
4. 조직문제이다.

전원회의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현 단계에서의 당 및 국가정책방향과 앞으로의 단기적 및 중장기적인 투쟁과업들을 밝힌 중요결론을 하시였다.

△ 2026 년 6 월전원회의의 기본정신에 대하여

당중앙위원회 제 9 기 제 2 차전원회의의 기본정신은 국가와 인민을 위해 채택한 당결정집행에 양보없이 철저하고 난관극복에 동요없이 과감하며 부족점과 편향시정에 주저없이 단호한 투쟁기풍과 방식으로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고 새로운 변혁을 창조해나가자는것이다.

당중앙전원회의의 기본정신에는 전당이 당결정집행에서 과학적이고 공세적인 전진방식과 투쟁원칙, 철저한 집행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단계의 혁신적목표를 지향한 올해 주요정책과제들의 성과적완결을 실속있게 담보할데 대한 당의 의도가 비껴있다.

△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천명하신 당 및 국가정책방향과 앞으로의 단기적 및 중장기적인 투쟁과업에 대하여

—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 제 9 차대회 결정을 받들고 새 출발을 할 때처럼 총천한 투쟁기세와 고도의 분발력을 견지할데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 당 제 9 차대회 결정관철의 첫째 투쟁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는데서 경제지도기관들과 인민경제부문앞에 나서는 제반 과업들과 실행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 국가적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생태환경보호기관들과 법기관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각급 재해방지기관들의 재해위기대응능력을 높이며 경공업부문에서 소비품들의 질을 개선하고 현대적인 경공업공장들을 건설하는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할데 대하여 중요하게 지적하시였다.

○ 또한 과학과 문화의 모든 부문에서 올해 사업계획, 정책적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완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자기 분야의 발전을 위한 전환적인 국면을 열고 국가의 부흥발전과 인민의 복리증진에 적극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국가방위력을 더욱 가속적으로 강화해나가려는 우리 당과 국가의 확고부동한 정책적립장을 재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제국주의와의 대립이 불가피한 우리 혁명의 특수성과 조성된 지정학적위기에 대처하여 강력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할수 있는 자위적억제력을 보다 확대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더욱 공세적으로 추진시켜나가려는 우리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립장을 다시금 명백히 천명하시였다.

위력한 국방자산들을 더욱 늘여나가기 위한 사업을 계속 멈춤없이, 철두철미 우리 식으로, 세계를 압도할수 있는 수준을 목표하여 강력히 실행해나갈데 대한 과업들과 인민군대 각급의 전투력제고에서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제반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특히 모든 군인들을 당과 조국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투철한 계급의식, 주적의식을 지닌 사상과 신념의 최강자들로 억세게 키울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시였다.

이와 함께 국가방위력강화에 필수적인 군사기지, 대상건설에 힘을 넣을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의 대적투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반제자주력량과의 연합전선을 강화하며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해나가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대외정책적립장을 다시금 천명하시였다.

제 2 차 세계대전후 그 전례를 찾아볼수 없는 패권세력의 날강도적이며 무제한한 지정학적탐욕과 힘의 람용으로 하여 세계적범위에서 보통의 개념과 상식으로는 상상할수 없는 엄청난 사건과 사변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전쟁과 류혈, 정치경제적불안정사태가 보편화되면서 자주세력과 지배세력사이의 진영대결이 가열되고있는것이 극히 첨예하고 가변적인 현 국제정세의 특징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는 이 복잡한 정세와 엄연한 지정학적현실을 외면할 권리가 없으며 또 외면해서도 안된다고 하시면서 힘이자 곧 국권이고 국위이라고, 우리 국가의 주권과 안전은 강한 힘에 의하여 철통같이 담보되여왔고 앞으로도 불변할것이라고, 이러한 우리의 견해에는 수정할것도 보충할것도 없으며 이는 우리 당의 장구한 반제투쟁사가 내린 총적결론이라고 강조하시였다.

○ 대외사업부문에서는 모든 대외관계를 국익수호와 부국강병에 복종지향시키는 견지에서 주동적으로 활기있게 전개해나가야 한다.

○ 특히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한 우리 당의 대적투쟁원칙을 철저히 견지하여야 한다.

—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당 제 9 기기간에 석탄공업부문의 세기적변혁을 반드시 이룩하며 시, 군인민위원회들의 기능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제고하는데서 견지해야 할 원칙적문제들을 재삼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전원회의에서 전국이 변혁하고 진보하는 시대에 석탄공업부문에 남아있는 세기적인 낙후성을 털어버리는 문제는 새로운 5개년계획의 성과적완수만이 아니라 국가경제의 전망적발전을 위한 차기 중장기계획수행에서도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전략적문제이며 우리 당이 탄부들과 한 약속이고 지체없이 전개해야 할 절박한 과제이라고 강조하시면서 《지방발전 20×10 정책》대상건설과 함께 석탄공업부문전반을 기술적으로, 문화적으로 개혁시키는 또 하나의 새로운 전선을 전개하기 위한 방향적문제들을 언급하시였다.

전국의 탄광지구를 완전히 일신, 천지개벽할데 대한 구상은 근로하는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절대적인 복무로 일관된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관,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적 빛나는 구현이고 가장 혁명적인 정책이며 원수님께서만이 내리실수 있는 용단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26년 6월전원회의는 국가발전의 긍정적추이를 확고히 틀어쥐고 보다 과학적이고 공세적인 전진방식과 투쟁원칙, 철저한 집행력으로써 새로운 단계의 혁신적목표를 지향한 올해 주요정책과제들의 성과적완결을 실속있게 담보하며 공화국의 절대적존엄과 불가역적지위를 만반으로 더욱 공고화해나가려는 당중앙위원회의 엄숙한 정치적의지와 원숙한 지도력을 뚜렷이 과시하였다.

반향문

위대한 우리 어머니당

중남지구협회 회장 백경현



우리들은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가 제시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돌파구를 열어나갈 관건적인 시기에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열렸다는 보도에 접하였다.

원수님께서 확대회의를 지도해주시고 현시대 나서는 건설투쟁의 방향과 그사업의 성과적실행을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시 해주시였다.

원수님께서서는 또한 석탄공업부문과 국방공업의 위력을 더욱 가속적으로 강화해나가려는 우리 당과 국가의 확고부동한 정책적립장을 재천명해주시였다.

저는 이번 확대회의사상을 자자구구 학습하면서 우리 어머니당이 얼마나 위대한 당이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우리당의 위업은 언제나 필승불패할것이라는 신념을 더욱 굳히면서 우리 중남지구를 책임진 일군으로 현시기 온 나라가 당제9차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들끓는 조국의 현실을 공민들에게 제때에 알려주고 보급하는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며 우리 공민들이 항상 조국을 잊지않고 조국을 위해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게 하는데 힘을 넣어 중남지구협회를 재중의 모범협회로 되도록 하는사업을 계속 힘써나가겠다는것을 결의 다지게 됩니다.

세상에 부럼 없는 나라 - 내 조국

연변지구협회 회장 김 권



우리 협회에서는 지난 6월 20일 부터 22일까지 진행된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제 9기 제 2차전원회가 제시한 전략적과제들과 새로운 5개년 계획수행의 돌파구를 열어놓아야 할 관건적인 2026년도 당 및 국가정책집행정형을 중간총화하고 하반기도 사업중심과 투쟁방향을 확정하며 사회주의 건설전반을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궤도에 올려세우는데서 절실한 현안문제토의결정을 학습하고 격동되는 마음 걸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김정은**동지께서 전국의 탄광지구를 완전일신, 천지개벽시킬 데 대한 구상은 근로하는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절대의 복무 그리고 숭고한 인민관, 인민대중 제일주의정치의 빛나는 결실입니다. 정말 감탄과 탄복이 저절로 터져나왔습니다.

가장 정당하고 성스러운 리상의 실현을 위해 항상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전진하는 우리에게 한해 한해가 귀중하고 그 한해를 이루는 달과 날들이 소중하다고 하시면서 모두다 거창한 창조와 변혁에로의 긍지높은 로정에 조국과 인민에 대한 진함없는 복무정신과 혁명위업에 대한 무한한 열정을 아낌없이 쏟으며 더욱 힘차게 투쟁해나가자고 호소하신 **김정은**동지의 그 말씀은 오래도록 내 마음에 깊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연변지구협회를 책임진 일군으로서 말은바 직책에 전력을 다하여 우리 연변지구협회 공민들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그들의 애로사항을 될수록 제때에 해결해 드리렵니다. 우리 연변지구협회 공민들의 총복이 되어 그들로 하여금 비교적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게끔 있는 힘을 다 하여 도와주렵니다.

끝으로 세상에 부럼 없는 나라-내 조국이 나날이 튼성번영하기를 중심으로 기원하며 재중총련합회두리에 굳게 뭉쳐 애국의 한길을 깨끗이 걸으렵니다.

조국과 운명

료녕지구협회 회장 주계숙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언제나 우리 해외공민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당중앙위원회 제 9기 제 2차전원회의가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었다는 기쁜 소식에 접하였습니다.

이번 전원회의 내용을 학습하면서 제가 느낀것은 조선로동당 제 9차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 전면적발전의 더 높은 도약을 위하여 제시된 전략적과제들과 돌파구를 열어놓기 위한 올해가 그 어느때보다 가장 관건적인 해이며 강철의 담력과 완강한 실천력, 탁월한 정치실력으로 전면적국

가부흥의 백년대계를 빛내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으므로 하여 우리에게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는 철석의 신념과 확고한 믿음이였습니다.

저는 료녕협회 회장으로서 이번 전원회의 사상을 심장에 새기고 항상 수령에 대한 절대충성을 신념과 의리로 받들어 조국과 운명을 같이 하며 료녕지구협회 전체 성원들이 조국인민들의 드높은 혁명적 열의와 과감한 투쟁기세에 보폭을 맞추어 공민활동에 열심히 참가하도록 협회를 잘 이끌어 나가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세상에 부럼없어라

재중조선인청년협회 회원 김수련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 9 기 제 2 차전원회의에서 채택된 석탄공업을 추켜세우며 전국의 탄광마을을 현대적으로 개변시킬데 대한 결정과 락원군에 선진적인 바다가양식사업소와 리상적인 어촌문화지구가 일떠선데 이어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들과 온실 농장까지 건설되고있는 현실을 놓고서도 한해한해를 뚜렷이 구획짓는 우리 조국의 변천사가 어떻게 씌여졌는가를 명백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앞날에 우리 조국을 인민의 꿈과 리상이 전면적으로 실현된 사회주의지상락원으로 꾸려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우리 국가의 영원한 송가로 울려 퍼지게 하려는것이 조선로동당의 억척불변의 의지이고 우리 당이 건설하려고 하는 사회주의는 우리 인민이 세상에서 제일 부유하고 가장 문명한 생활을 누리는 천하제일강국이라는것을 폐부로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전원회의내용을 학습하면서 탁월한 사상과 령도로 전면적국가부흥의 새 변혁시대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높이 모신것은 우리 인민의 최대의 영광이고 긍지이며 후손만대의 행복이라는것을 다시금 느끼면서 비록 몸은 조국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언제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해외전사답게 해외조선공민답게 조국을 위하여 저의 작은 힘이나마 이바지하겠다는것을 결의다지게 됩니다.

인민에 대한 사랑과 정

재중조선인청년협회 회원 김혜경



전원회의에서는 전국이 변혁하고 진보하는 시대에 석탄공업부문에 남아있는 세기적인 락후성을 털어버리는 문제는 새로운 5 개년계획의 성과적완수만이 아니라 《지방발전 20×10 정책》대상건설과 함께 석탄공업부문전반을 기술적으로, 문화적으로 개혁시키는 또 하나의 새로운 전선을 전개하기 위한 방향적문제들이 밝혀져있습니다.

제 9 차당대회따라 온나라 방방곡곡에 우후죽순처럼 일떠선 지방산

업 공장들과 보건시설, 종합봉사들, 궁궐같은 살림집들, 굴지의 종합농장들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급속도로 발전하며 기적적인 현실이 날에 날마다 일어나고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인민에 대한 사랑과 정입니다.

그사랑과 정으로 우리 인민은 탄광지구를 또 하나의 문화적이며 현대화된 기념비적물들을 창조할것입니다.

저는 회의내용을 가슴깊이 새기고 당대회결정에 호응해나선 조국의 로동계급과 청년들의 격앙된 열의와 집단적인 혁신에 발을 맞추어 해외공민으로서의 자기본분과 역할을 잘해나가겠습니다.

국제친선전람관을 참관하고

대련시 제 24 중학교 학생 리준정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의 배려로 묘향산에 위치한 국제친선전람관을 참관하였습니다. 국제친선전람관안에는 세계 여러나라 국가수반들과 고위급 인사들이 경애하는 원수님들께 삼가 드린 진귀한 선물들이 끝없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희귀한 선물들이 빼곡이 자리잡은 보물궁전과 같은 전람관을 돌아볼 때마다 저는 탄복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하나하나의 선물속에는 세계 인사들의 진실한 경의와 흠모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선물들을 바라보며 경애하는 원수님들의 높은 국제적 위신과 권위를 다시 한번 똑똑히 실감했고 우리 조국이 세계로부터 존중받고 있다는 자부심이 가슴가득 차올랐습니다.

저는 오늘 국제친선전람관에서 보고 느낀 모든 감동을 영원히 가슴깊이 새기겠습니다.

위대한 원수님들의 국제적활동과 혁명업적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언제나 원수님의 사상과 지

도를 충실히 받들어 나가겠습니다.

세계 각지의 인사들이 정성을 담아 드린 선물들을 보며 저도 언젠가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저의 충성의 마음을 담은 소중한 선물을 꼭 드리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마음속에 끓어오릅니다.

이 숭고한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 저는 열심히 공부하고 부단히 단련하여 조국과 인민에게 힘이 되는 훌륭한 인재로 자라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해외동포들의 아버지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도록 온 힘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초심을 잊지 않고 사업하는 지부장

총련합회 김영희



김준남지부장 왼쪽으로부터 두번째

길림지구협회에 집안시지부가 있다.

집안시는 중국 길림성 서남부에 위치한 변경도시로서 장백산남쪽기슭, 압록강중류에 자리하고 있다.

강을 사이에 두고 조선 자강도만포시와 마주하고 있다.

고구려의 수도이었고 고구려시대의 많은 력사유적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아름다운 력사도시에 재중총련 길림지구협회 집안시지부가 있다.

집안시지부는 공민수가 비교적 많은 지부이다.

현재 김준남선생이 집안시지부장을 맡고 사업을 하고 있다.

집안시지부는 재중총련이 성립된 1991년 3월부터 조직되었고 그당시 지부장은 리화선 선생이었다. 후에 김용남선생, 허상숙선생, 김준남선생으로 이어 지부를 이끌고 있다.

지부일꾼이라면 무엇보다 공민들을 마음에 두고 그들의 중추가되어야 한다.

자신의 진실한 마음 바쳐 시대적책임으로 사업해야만 재중총련을 받드는 든든한 지부로 될수있다.

김준남지부장은 말수가 적고 전형적인 실제행동으로 사업하는 일꾼이다.

비록 지부장사업을 맡은지 얼마되지 않지만 열성공민으로 조직생활에 적극적이었으며 공민된 본분을 다하였다.

김준남지부장은 지부사업을 맡은 날부터 지부사업에 마음을 두고 공민들의 일을 자신의 일로 생각하며 생활상에서 애로되는 문제점들을 당지 유관부문에 가서 해결해주고 해결하지 못한것은 본부에 제기하여 해결대책을 강구하면서 공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뛰면서 실제행동으로 산하공민들을 귀중히 여기고 언제나 공민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사업을 해나간다.

특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밝혀주신 해외교포운동의 4대과업과 3대주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변화된 환경과 시대적요구에 맞게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장까지 젊은 일꾼으로 겸비된 지부로 조직을 강화하는데 힘을 아끼지 않았다. 매번 재중총련본부에서 보내는 학습자료들을 지부그룹에 올려 모든 공민들이 학습하고 조국의 날로 변모되는 현실을 체득하게 하고 재중총련본부의 모든 활동에 빠짐없이 참가한다.

뿐만아니라 협회사업에도 열정적이고 맡겨준 사업들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매번 지부 활동때마다 전체 지부공민들에게 통지하고 민족웃차림으로 활동에 참가하여 단결된 모

습을 보이고 있다. 음력설명절때마다 지부공민들을 찾아 본부의 사랑을 전해주고 조국의 달력도 전달하면서 성심성의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

이처럼 산하 공민들을 존경하며 공민들을 거울로 삼아 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초심을 잃지않고 사업하기에 지부가 활성화되고 공민들이 믿고 따르고 받든다. 앞으로도 집안시지부는 김준남지부장을 비롯한 지부일군들의 공민들에 대한 사랑과 헌신적복무정신으로 더욱 힘차게 매진해나갈것이라고 확신한다.



경제인의 사명감을 자각하고



김성미



김일남



방영선



김금희



림선화



재중조선경제인연합회 경제인들이 사업에서 성과를 올리고 있다. 재중조선경제인연합회의 사명은 재중조선인총연합회를 경제적으로 뒤받침하는것이다.

오래동안 경제인들은 총련합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어려운 환경에서도 힘써 노력하여 자기앞에 맡겨진 임무를 훌륭히 완수하여 왔다.

주목되는것은 경제인연합회에 가입한지 얼마 되지 않는 젊은 경제인들이 패기에 넘쳐 사업을 잘하고 있는것이다.

방영선, 김금희, 김성미, 림선화, 김일남동무들이 벌써 올해 임무를 앞당겨 완수하였다.



특히 재중조선경제인연합회 김승걸부회장은 오래동안 경제사업을 하여 오면서 총련합회를 위하여 이악하게 진함없이 노력하여 남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감히 손을 못대는 큰 사업들을 성공시켜 총련합회에 도움을 주고있다. 그의 노력과 사심없는 소행에 공민들이 감사를 드리고 있다. 재중조선경제인연합회 모든 성원들의 사업이 계속 잘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조선사람

작사 리지성

작곡 장충심

1. 그 누구도 못 가본길 굴 함없이 우리왔네

이 나라를 목숨보다 더 사랑하기 에

설 한 풍도 포화 속도 피로 헤쳐 승리했고

맨 손으로 빈터 에도 락원-세웠네

(후렴)

그 령 게 강 하다- 우리는 조 선 사 람

대 대 손손 굴 할 줄을 모 른 다

보 여 주 리라- 그 기 상 백 배 해 -

이 조 선이 억 년 솟아 강 대- 함 을

- | | |
|------------------------|---------------------------|
| 2. 추억깊은 가슴들과 가정들에 살아있네 | 3. 굳게 믿는 자기 힘과 미래위한 그 사랑이 |
| 아낌없이 생을 바친 선렬들 그 넋이 | 어떤 강국 세우는지 세상은 보리라 |
| 그들처럼 운명걸고 우리 존엄 지켜가고 | 도전하는 모든것을 걸음마다 짓부시며 |
| 쓰러져도 우리의 길 끝까지 가네 | 성스러운 우리 앞날 개척해가리 |
| (후렴) | (후렴) |

조국해방 81돐을 각지에서 뜻깊게 경축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조국해방 81돐을 뜻깊게 맞이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에 들어선 군중들은 절세위인들의 영상을 우러러 인사를 드리였다. 만수대언덕을 비롯하여 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과 절세위인들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찾은 일군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 청소년학생들은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였다.

직충중앙위원회, 녀맹중앙위원회의 일군들이 조선혁명박물관을 참관하면서 조국해방의 력사적대업을 이룩하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깊이 체득하였다.

대성산혁명렬사릉과 혜산혁명렬사릉 등에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전면적국가부흥을 앞당겨가려는 철석의 신념을 만장약한 계승자들의 대오가 굽이쳤다.

각지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은 혁명전적지답사와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발표모임, 웅변모임 등을 진행하였다. 평양시와 지방의 거리와 마을, 공장과 농장, 학교들에 공화국기가 휘날리고 곳곳마다에서 경축공연들이 펼쳐져 명절분위기를 더해주었다. 수도와 각지의 급양봉사단위들이 특색있는 명절봉사로 흥성이었다. 문화휴식터들에서도 명절의 하루를 즐겁게 보내는 근로자들과 학생소년들이 터치는 행복의 웃음소리가 그칠줄 몰랐다. (끝)

문화정서생활기지들에 차넘치는 인민의 기쁨과 랑만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비롯하여 각지의 문화휴식터들과 관광명소들에서 수많은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있다.

동해명승 명사십리에 사회주의문명을 향유하는 인민의 환희가 물결치고있다.

삼지연시에 대한 관광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에서 삼지연지구 경관부감, 온천욕 등을 하며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있다.

수도의 문수물놀이장과 만경대물놀이장, 룡라물놀이장도 련일 이곳을 찾아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있다. 해양체육

월간을 계기로 수영배우기에 여념이 없는 학생소년들과 모래터배구 등을 하며 체력을 단련해가는 청년들, 해빛에 달아오른 모래불에서 일광욕을 하는 로인들의 모습은 동해와 서해의 해수욕장들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우리 국가의 온천문화를 대표할수 있는 기념비적창조물로 솟아난 온포근로자휴양소에서 인민의 웃음소리, 행복의 노래소리가 울려퍼지고있다.

이밖에 명승지마다에 꾸려진 문화정서생활기지들도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로 흥성이고있다. (끝)



동해기슭의 아름다운 경 관-락원포

함경남도의 락원군에는 아름다운 경 관을 자랑하는 락원포가 있다.

생산시설 및 가공공장들을 갖춘 특색있는 수산물생산기지와 산기복을 따라 주변의 자연풍치와 어울리면서도 편리성과 미학적, 조형예술적으로 독특한 수백세대의 어촌문화주택들이 일떠선 동해기슭의 락원포는 그야말로 한폭의 그림과 같다.

우리 인민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곳의 전변상을 보면서 군을 길이 흥하도록 확실한 발전토대를 갖추어주고 사회주의락원의 본보기를 창조하시기 위해 로고를 바쳐오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업적을 가슴뜨겁게 새겨보고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동해기슭의 명당자리에 터전을 잡아주시고 몸소 건설의 첫삽도 뜨시였으며 이 어촌의 이름을 《락원포》라고 부르도록 하시였다. 락원군바다가양식사업소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 어촌문화주택들이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되도록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2025년 8월 30일 락원군바다가양식사업소 준공식에 참석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락원포가 년년이 늘어나는 번영의 재부들과 더불어 사회주의리상향으로 길이 흥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군내인민들이 세세년년 만복을 누려가기를 축복해주시였다. 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바다가양식을 활성화하여 지방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기 위한 헌신적인 투쟁을 벌립으로써 올해 2월과 6월에 준공후 수백t의 만반조개와 미역, 다시마를 수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들은 혼합양식을 비롯한 선진적인 양식방법을 받아들이고 양식물의 생육상태에 따르는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여 안정적인 생산장성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끝)



제 7 차 전국 3대혁명소조기술혁신전시회 개막

제 7 차 전국 3대혁명소조기술혁신전시회가 개막되었다.

전국의 3대혁명소조원들은 파견단위와 지역들에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기술혁신활동을 벌려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성, 중앙기관과 각 도들에서 우수하게 평가된 600여건의 기술혁신성품들이 실물과 모형, 도해판 등의 형식으로 출품되었다.



개막식이 18일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승두동지와 내각부총리 전승국동지, 위원회, 성, 중앙기관, 관계부문 일군들, 3대혁명소조원들이 참가하였다.

개막식에서는 연설이 있었다. (끝)

평양시려객운수종합기업소에서 새 축전지빠스로선구축사업 추진

수도 평양에서 해마다 축전지빠스로선들이 늘어나고있다.

《민주조선》에 의하면 올해에도 평양역으로부터 락랑구역 전진동까지의 구간에 축전지빠스로선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게 된다.

평양시려객운수종합기업소에서는 련관부문, 단위들과의 련계밑에 도안과 설계작성, 건설력량편성을 선행시키고 필요한 자재, 부속품보장을 비롯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해줌으로써 축전지빠스생산과 전진축전지빠스사업소건설이 추진되도록 하고있다.

평양무궤도전차공장에서 축전지빠스들을 새로 제작하는 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한데 이어 무궤도전차들을 축전지빠스로 개작하기 위한 사업도 진척시키고있다.

국가과학원 나노공학분원에서도 축전지보장을 위한 사업을 내밀고있다. (끝)

나라의 농기계공업발전을 견인하는 금성 트랙포르공장

남포시에 자리잡고있는 금성트랙포르공장은 우리 나라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실현에서 선봉적역할을 하는 핵심공장이다.

공장에는 마력수가 높은 트랙포르와 함께 여러가지 능률적인 농기계를 만들수 있는 첨단화된 설비들과 선진적인 생산공정들이 갖추어져있으며 제품전시장, 체육관 등이 꾸려져있다.

현대적인 공장으로 그 면모를 일신한 공장의 전변에는 나라의 농기계공업을 발전시켜 농업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주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뜨거운 사랑이 깃들어있다.

공장의 개진현대화에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들을 밝혀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이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중대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2023년 8월 23일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1단계 개진현대화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현대화의 다음단계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문제들도 깨우쳐주시였다.

이날의 현지지도는 공장기술개건의 명확한 표대가 확립된 력사적인 계기였다.

공장의 로동계급, 련관단위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군인건설자들은 개진현대화사업을 다그쳐 2단계 과업도 성과적으로 완결하였다.

나라의 농기계공업발전을 견인하는 보배공장으로 내세워준 당중앙의 믿음을 새기고 공장의 로동계급은 트랙포르생산을 내밀면서 여러가지 능률적인 농기계를 더 많이 제작완성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있다. (끝)



첨단육종기술을 우리 식으로 확립

농업과학원에서 첨단육종기술인 벼속도육종기술을 우리 식으로 확립하였다.

이번에 과학자들은 벼속도육종장치를 국산화하고 그를 리용한 육종기술을 새롭게 연구해냄으로써 새 벼품종육종기일을 훨씬 단축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한 우리 식의 현대적인 육종기술과 육종방법을 확립하여야 합니다.》

전통적인 육종방법과는 달리 첨단육종기술을 받아들이면 적은 품을 들이면서도 짧은 기간에 목적하는 품종을 육종해낼수 있다.

벼속도육종기술은 벼의 생장발육에 필요한 환경조건들을 인공적으로 조성해주어 생육속도를 높이고 생육기간을 최대로 줄일수 있는 기술이다.



-농업과학원 벼연구소에서-

세계적으로 속도육종에 대한 연구를 광범히 벌리고있으며 현대적인 생물공학기술들과 결합시켜 우량한 농작물품종들을 빠른 기간에 육종 및 개량하고있다.

불리한 기후조건에서도 높고 안전한 소출을 낼수 있는 우량벼종자들을 짧은 기간에 육종해낼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벼연구소와 농업생물학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수년전부터 연구사업을 줄기차게 벌렸다.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는 혁신적인 안목으로 문헌자료연구에 품을 들이고 진지한 토론을 벌리는 과정에 연구집단성원들은 우리 실정에 맞는 속도육종기술방안을 탐구해내었다.

특히 과학자들은 우리의 지혜, 우리의 자재로 빛, 온도, 습도, 탄산가스를 자동적으로 보장할수 있는 여러 설비제작과 조종체계구축에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들을 기동성있게 해결함으로써 벼속도육종체계를 우리 식으로 확립하였다.

속도육종기술의 확립으로 새 벼품종의 육종 및 개량연구주기를 훨씬 단축하고 로력과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연구효률을 높일수 있게 되었다. 한해에 벼를 여러 세대 취급할수 있는 첨단육종기술이 확립되고 물질기술적토대가 원만히 갖추어지게 됨으로써 우량품종의 종자들을 빠른 기간에 육종해낼수 있는 또 하나의 과학적토대가 마련되었다.

지금 과학자들은 속도육종기술을 활용하여 병저항성이 강하고 생육기일이 짧으며 질과 소출이 높은 새 벼품종들을 육종해내기 위한 탐구활동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논판양어정책이 안아온 흐뭇한 결실 재령군 삼지강농장에서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유기농법을 적극 장려하여야 합니다.》

가을철을 앞둔 지금 재령군 삼지강농장의 논판양어포전에 흐뭇한 광경이 펼쳐졌다.

메기수확의 기쁨으로 온 농장이 명절처럼 흥성이고있는것이다.

물 절반, 고기 절반인듯싶은 논판양어포전, 팔뚝같은 메기들이 어찌나 많은지 퍼내고 또 퍼내도 끝이 없을것만 같다.

한마리가 보통 850g, 최고 2kg이상! 메기를 수확하는 포전의 여기저기에서 련속 감탄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우리과 만난 농장경리 리혜숙동무는 올해 농장에서는 대담하게 5정보의 포전에 논판양어를 받아들이었는데 맨 처음으로 새끼메기를 놓아주었던 0.3정보의 포전에서 수확을 진행하고있다, 현재까지 술

한 메기를 거두어들이었다고 기쁨에 넘쳐 말하였다.

아무리 퍼내도 자리가 나지 않아 오늘중으로 마무리할것같지 못하다고 하는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어려있었다.

그는 헐잡아도 13t은 문제없다고, 정보당 환산해보면 40여t의 메기를 수확하는것으로 된다고, 이제 5정보의 논에서 메기를 다 거두어들이면 농장에 있는 댕장고의 능력이 부족할것같다고 행복한 걱정을 앞세우는것이였다.

논벼농사도 얼마나 잘되였는지 정보당 13t은 장담한다고, 5정보의 논벼농사에 소비해야 하였던 여러t의 비료를 전혀 쓰지 않은것은 물론 살초제도 절약하면서 이런 작황을 마련하였다는 그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흥그럽게 해주었다.

인민군대처럼 우리도 논판양어를 본때있게 해보자.

이런 결심을 안고 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은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당에서 하라는대로만 하면 반드시 모든일이 다 잘된다는 굳은 신념을 안고 농장일꾼들과 농장원들은 논판양어에 대담하게 달라붙었다.

품을 들여가며 종어장을 번듯하게 꾸려놓은 덕에 올해 수십만마리의 새끼메기를 생산하여 논에 놓아줄수 있었다.

농장에서는 당에서 가르쳐준대로 물자원과 수질조건, 주변지역의 오염관계, 물대기와 물빠기조건, 토질특성을 고려하여 적지를 선정하고 물고기의 생육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기 위해 물고기다님길과 물웅덩이를 기술적요구대로 만들어놓았다.

메기의 생육기일을 줄이고 먹이단위를 낮추는 문제를 비롯하여 논판양어의 과학화, 집약화를 실현하는데 힘을 집중하였다.

새끼메기도 모내기를 한 다음 한주일이 지나 제 날자에 단계별로 놔주었다.

논판양어와 관련한 기술을 하나하나 배우며 이악하게 노력한 결과 70여일동안에 이 많은 메기를 기를수 있었다.

... 권혜영동무의 뒤를 이어 경리가 이제 물고기를 수확한 다음 이 포전에 또 새끼메기를 놓아주려고 한다고, 논벼를 가을할 때까지 남은 기간에도 얼마든지 메기를 크게 기를수 있다고 신심에 넘쳐 말하였다.

크나큰 공지와 자랑을 안고 품들여 키운 메기들을 한시라도 더 빨리 농장원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부지런히 일손을 다그치는 양어분조의 장성일, 김철훈동무를 비롯한 농장원들. 농촌변혁의 시대에 펼쳐진 또 하나의 이채로운 풍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도 마냥 즐거웠다.

메기들을 받아안고 기뻐할 농장원들의 모습을 그려보며 우리는 농장을 떠났다.

우리 선수들 제 11차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3개의 종합우승컵과 75개의 금메달 쟁취

제 11차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가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몽골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선수권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은 75개의 금메달을 포함한 99개의 메달과 3개의 부류별종합우승컵을 쟁취하는 자랑스런 경기성과를 거두었다.

우리 선수들은 성인, 청년, 소년부류 남, 녀단체틀경기, 성인부류 녀자단체맞서기경기, 청년부류 남, 녀단체맞서기경기, 소년부류 남, 녀단체맞서기경기, 성인, 청년, 소년부류 남, 녀호신경기, 성인부

류 녀자단체특기경기, 청년부류 녀자단체특기경기, 성인부류 녀자단체위력경기에서 각각 1위를 하였다.

성인부류 남자개인틀경기에서 강성, 김위봉, 신윤희선수들이, 녀자개인틀경기에서 백지해, 박련성, 신해양, 홍진경선수들이, 청년부류 남자개인틀경기에서 김진송, 리현총, 리성선수들이, 녀자개인틀경기에서 최현정, 최윤정, 정의경선수들이, 소년부류 남자개인틀경기에서 리정웅, 고주몽선수들이, 녀

자개인틀경기에서 리정연, 최진별 선수들이 우승하였다.

성인부류 남자개인맞서기경기에서 리혁, 한일명, 강성, 김위봉, 독고철범, 신윤혁 선수들이, 여자개인맞서기경기에서 박지향, 김유심, 박련성, 신해양, 백지해, 로국화, 김유정, 홍진경 선수들이 영예의 1위를 쟁취하였다.

청년부류 남자개인맞서기경기에서 남일홍, 리준국, 리성, 김진송, 리현총, 최권홍 선수들이, 여자개인맞서기경기에서 최윤정, 현정, 정의경, 김행복, 최현정, 함보경, 옥신혜 선수들이, 소년부류 남자개인맞서기경기에서 김일평, 황국대, 리정웅 선수들이, 여자개인맞서기경기에서 안의련, 리진경, 리정연, 강례경, 최진별 선수들이 각각 우승하였다.

성인부류 남, 녀개인위력경기에서 두금성, 홍진경 선수들이, 여자개인특기경기에서 신해양 선수가 단연 1위를 하였다.

이번 선수권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은 성인, 청년, 소년부류 종합우승컵과 남, 녀

최우수단체상을 획득하였으며 신윤혁, 신해양 선수들이 성인부류에서, 리현총, 최윤정 선수들이 청년부류에서, 리정웅, 최진별 선수들이 소년부류에서 각각 남, 녀 최우수기술상을 받았다.

제 11차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조국의 영예를 빛내인 태권도선수들을 14일 평양역에서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체육부문, 관계부문 일군들, 체육인들, 가족들이 뜨겁게 맞이하였다.

체육인들이 선수, 감독들에게 꽃목걸이를 걸어주고 꽃다발을 안겨주며 경기성과를 축하해주었다.

승리거리를 비롯한 수도의 거리들에서 시안의 근로자들과 학생들이 미더운 체육선수들을 손저어 반기며 축하의 인사를 보내었다.

태권도선수, 감독들은 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명예를 우승의 금메달로 빛내여갈 결의를 가다듬으며 시민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었다.



《삼지연료리전시회-2026》 진행

《삼지연료리전시회-2026》이 조선료리협회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10일부터 14일까지 삼지연시에서 진행되었다.

《산악관광지구에서의 음식문화》라는 주제로 진행된 전시회에는 인민봉사부문, 대외봉사부문, 평양시사회급양부문, 성, 중앙기관 봉사부문, 각 도(직할시) 급양봉사부문, 삼지연산악관광지구 호텔 및 급양봉사부문의 단체들이 참가하였다.

전시회는 모든 참가단체들이 부문별로 지정하여준 요리들을 만들어 전시하며 봉사도 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우수한 가공기술과 경험을 교류하는데 중심을 두고 진행된 전시회에서는 청류관, 창광종합식당, 평양메기탕집의 요리사들이 내놓은 단호박지짐, 향설고, 남새빵, 메기깨튀기 등이 참관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보통강구역, 평천구역, 만경대구역사회급양관리소의 요리사들은 평시에 련마한

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심사지표에 따르는 음식의 고유한 맛과 속성을 잘 살린 만두, 두부버섯볶음, 짜배기 등을 출품하였다.

지방특산물리들도 전문가들의 관심을 모았다.

평안북도, 평안남도, 강원도 등의 급양봉사단위들에서는 도라지생채, 감자정과, 찹쌀이차를 비롯한 해당 지역의 특성이 살아나는 갖가지 요리들과 음료들을 내놓아 전시회를 이채롭게 하였다.

밀영호텔, 봇나무호텔, 삼지연시사회급양관리소 순두부집을 비롯하여 삼지연시의 호텔들과 식당들에서 만든 고비볶음, 곶취나물, 감가지짐, 들쭉차 등도 지방고유의 풍미를 돋군것으로 하여 참관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14일에 진행된 폐막식에서는 심사결과가 발표되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체들과 참가자들에게 상장이 수여되었다.



할빈 관광열기에 활력 불어넣은 조선족민속문화 대잔치

13 회 할빈조선족민속문화축제

흑룡강성 여름관광 《백일행동》의 강력한 추진에 힘입어 할빈 관광열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8월 22일부터 23일까지 《민속 활력 되살리고 한마음으로 꿈 이루자》를 주제로 한 제 13 회 할빈조선족민속문화축제가 송화강변 인민광장에서 성대하게 펼쳐졌다. 본 행사는 할빈시문화광전관광국이 주최하고 할빈시조선민족예술관과 할빈시조선민족사업촉진회가 주관하며 도리구문화체육관광국과 도리구문화관이 협조했다.



할빈시 조선민족예술관 리춘실 관장은 《조선족 민속문화는 중화 우수 전통문화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자 각 민족이 서로 교류하고 융합해 온 살아있는 증거》라고 하면서 우리가 다년간 조선족민속문화축제를 개최하는 것은 행사를 매개로 조선족 무형문화유산의 전승과 중화우수전통문화의 융합발전을 추진하기 위함이다'고 행사취지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정적인 전시와 동적인 예술 공연을 유기적으로 융합해 다차원적이고 몰입감 있는 민속문화 체험 현장을 조성했다. 특히 길림, 대련, 장춘, 심양 등 동북 3성 조선족 예술관이 결집해 마련한 공연무대는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관객들에게 고품격 시청각 향연을 선사했다.

예술공연, 민속재현, 전통경기, 풍물체험 등 네가지 축제섹션으로진행된 행사는 조선족 민속문화의 본래의 멋과 시대적 새로움을 립체적으로 보여주며 무형문화유산이 전시관을 벗어나 시민과 관광객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도록 했다.

예술공연 부문에서는 력동적인 민족 무용과 정겨운 민속노래 공연이 번갈아 펼쳐졌으며 출연진들은 아름다운 전통 민족복장을 입고 뛰어난 기예로 조선족 예술의 독특한

매력을 선보였다. 그외 민악특별 공연과 교향악 특별 공연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며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했다.

민속재현 부분에서는조선족의 핵심 민속 의식인 전통 혼례와 회갑례의 의식 절차·전통 복식·의례 규범을 철저히 복원해 엄숙하고 우아한 분위기 속에서 민족례의범절과 민속의미를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조선족장기·윷놀이 등 고전 전통 민속 경기종목은 대중 생활 속으로 녹아들도록 하여 사람들이 직접 체험하며 전통 민속의 매력을 느끼고 무형문화유산의 다채로운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했다. 특히 씨름경기는 민족의 진취적인 기상을 보여주고 관람 가치를 높였다.

품물 체험 부분에서는민족 단결의 꽃을 활짝 피웠다. 현장에는 몰입형 민속 품물 체험 구역이 마련되어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특히 다민족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대형 석류 비빔밥 만들기 행사는 각 민족 인사들이 협력해 음식을 만들며 민족간 서로 어우러져 살아가는 깊은 정을 보여주었다.

현장에서는 찰떡 만들기 체험, 조선족 전통의상 체험 행사가 진행됐고 막걸리, 김밥, 랭면 등 조선족 특색 음식이 전시되어 '보고 맛보고 참여하고 체험하는' 립체적 문화향유 환경을 조성했다.

이같은다채로운 민속 행사는 현지 시민들에게 본토 문화의 매력을 깊이 체험할 기회를 선사했다. 도리구 시민 리씨는 여러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고 나서 《매년 열리는 조선족 민속 축제에 빠지지 않고 오는데 올해는 내용이 더 풍부하고 체험감이 뛰어나다》며 소감을 전했다.

절강성항주에서 온 장씨 관광객은 《할빈 여름 관광 성수기를 맞아 여행을 왔는데 우연히 이번 민속공연을 만나 조선족 문화를 색다르게 체험했다》며 이번 할빈 여행이 매우 알차다고 전했다.

이번 조선족민속문화축제는 전통문화 전승과 민족 단합 발전을 근간으로 문화 본연의 가치를 지키며 시대적 혁신을 추구하고 다원 교류 속에서 공동 발전의 공감대를 형성해 민족 단합·문화 번영·화목 공존의 신시대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다. /흑룡강신문



제 5 회 전국성인조선어시랑송콩쿨 성대히 열려



25 일, 연변조선족자치주화술학회에서 주최한 제 5 회 전국성인시랑송콩쿨이 출연자들과 학회회원, 래빈 6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길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대회는 허련희, 김진홍의 사회로 시작됐다.

먼저 국가를 제창한 후 연변라지오텔레비존방송국 리호남 국장 등 20 여명 래빈들이 소개됐고 박봉화 등 세명의 축하말에 이어 손정화 회장의 개회사가 있었다.

그는 《그동안 학회는 중화민족의 대가정 속에서 조선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을 안고 우리 민족의 언어문자를 빛내가는데 도움되는 많은 일들을 해왔다》고 하면서 모든 참가자들이 자신의 랑송실력을 잘 발휘하길 바랬다.

이어 본격적인 시랑송경연이 펼쳐졌다.

경연에는 전국 각지의 신청인원 가운데서 예선에 통과된 19 명 경연자들이 참석하여 저들의 기량을 남김 없이 뽐냈다.

경연이 끝난후 학회회원들의 중창이 이어졌고 이어서 서방홍 교수가 심사평을 진행했다. 서방홍 교수는 심사평에서 대상 수상자의 작품을 레로 시범을 보이며 잘된 부분을 충분히 긍정했으며 랑송의 장단점을 지적하고 이번 랑송이 앞으로의 우리 민족 시랑송 풍격의 발전과 변화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 밝혔다. 동시에 랑송가들이 앞으로 좋은 시들을 많이 랑송하여 더 높은 수준의 랑송기량을 보여줄 것을 희망했다.

이어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백춘화가 대상을; 오성애, 김춘월, 리정자, 박춘화가 금상을; 강옥설, 김계영, 박송천이 은상을; 신계옥, 김미옥, 리순자, 홍명희가 동상을; 허철매, 최려홍, 원춘희, 박정자, 한소윤이 우수상을; 석금녀, 박련옥이 격려상을 수상했다.

대회는 축하무대로 회원들의 멋진 춤에 이어 학회 고문 최기자 선생의 축하의 말씀으로 막을 내렸다.

/후룡강신문

장춘시조선족로인협회 설립 39 돛 경축대회 개최

《장춘시조선족로인협회 설립 39 돛 경축대회》가 장춘시조선족군중예술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장춘시와 여러 구 협회의 책임자와 전임 회장 및 협회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39 돛의 뜻깊은 날을 경축했다.

대회는 전원이 국가를 부르면서 장엄한 분위기 속에서 막을 올렸다.

축사에서 장춘시조선족로인협회 주춘희 회장은 수년간 협회의 사업과 발전에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각급 지도자와 사회 각계 인사들에게 감사를 표하고나서 수십년간 함께 땀을 흘리며 빛나는 성과를 이룩해낸 전체 회원들에게 충심으로 되는 경의와 문안을 표했다.

이어 그는 30 여년의 협회 사업을 총화하고 《앞으로 협회의 문명건설을 강화하고 활동 내용과 형식을 다양화하여 로인들의 문화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펼쳐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경축 분위기는 다채로운 문예공연으로 한층 고조되었다.

각 구 협회에서는 자체 창작하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다.

로인들은 기개 넘치고 포만된 열정으로 민족특색이 짙은 춤과 노래를 펼치면서 새시대 로인들의 낙관적이고 진취적인 정신풍모를 전시했다.

현장은 관중석에서 철 새 없이 터져나오는 박수갈채로 공연장을 후끈 달아오르게 했는데 로인들이 정성껏 준비한 문예종목을 진정 한 명절분위기를 연출했다.

경축대회는 참석한 로인들의 《세월은 흘러 나이는 들었지만 젊음의 기쁨을 잃지 말고 다채로운 문화생활을 누리며 건강하고 즐거운 로년을 보내자.》는 다짐을 나누며 훈훈한 감동속에서 막을 내렸다.

이날 행사는 장춘시조선족로인협회가 걸어온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로 자리매김되었다.

/길림신문



축수의례로 가풍 이어간다... 화천현 성화촌 팔순잔치

최근 가목사시 화천현 성화 도향관광구에서 조선족 전통 팔순잔치가 화기에애한 분위기속에서 열렸다. 촌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어르신들에게 아름다운 축복을 전했다.

행사 현장은 관광구 광장을 기반으로 정성껏 꾸며졌고 민족특색 장식이 곳곳에 놓여 분위기가 아주 짙었다. 로인들이 화려하고 정교한 조선족 전통 의상을 입고 자리에 앉았고 상에는 떡, 특색 파자 등 전통 조선족 음식이 가득 마련해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의 모습을 직접 보여줬다.

소박한 축하 말 한마디 한마디, 정성이 가득 담긴 생일 술 한잔 한잔, 따뜻한 인사 한마디 한마디가 현장을 따뜻한 정으로 가득 채웠다.



《예순한살부터 생일 잔치를 여는 게 지금까지 이어온 풍속입니다. 지금은 일흔살, 여든살부터 생일 잔치를 엽니다. 마을에서도 통일적으로 관리해 자식들이 곁에 없어도 전통례의에 따라 축수의식을 치룹니다. 이런 어른을 공경하는 전통을 우리는 지금까지 이어왔습니다.》 라고 촌민 리순례가 말했다.

의식이 끝난 뒤 활기찬 민속예술공연이 차례로 펼쳐져 현장 분위기를 달궜다.

촌민들이 자발적으로 무대에 올라 전통의상을 입고 노래와 춤으로 민속의식속에서 어른을 공경하는 미덕을 이어가고 시골 백성의 행복한 삶을 이야기했다. 순수한 민속의식에 이끌려 관광객들은 끝까지 구경하고 사진을 찍었다.

조선족 민속 무용 공연.

《무한에서 가목사로 려행왔는데 마침 여기서 조선족 어르신의 팔순잔치와 마주했습니다. 아주 신기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노래하고 춤추는 축수장면이 매우 활기차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라고 관광객 진국씨가 말했다.

최근 몇년동안 화천현 성화촌은 조선족 특색 민속문화를 꾸준히 이어가면서 무형문화유산을 향촌문명건설, 군중의 정신문화생활과 깊이 융합시켰다.

화천현은 계속해서 토착민속자원을 잘 활용하고 소수민족문화 브랜드를 빛내 군중의 정신문화생활을 지속적으로 풍부히 하고 현역 문화력행의 식별도와 영향력을 높여 현역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깊은 문화 동력을 주입시킨다는 계획이다.

/흑룡강신문

네팔과 중국의 국경지역에서 거대한 붕괴로 대규모자연재해 발생

네팔과 중국사이의 국경지역에 있는 히말라야산줄기에서 26일 거대한 빙하가 붕괴되면서 대규모자연재해가 발생하였다.

네팔의 산악지대에서 빙하의 붕괴로 인한 산사태와 큰물로 28일 아침까지 사망자수는 469명으로 늘어났으며 행방불명자수는 977명에 달하였다.

네팔과 중국사이의 국경지역에 있는 히말라야산줄기에서 26일 거대한 빙하가 붕괴되면서 대규모자연재해가 발생하였다.

네팔의 산악지대에서 빙하의 붕괴로 인한 산사태와 큰물로 28일 아침까지 사망자수는 469명으로 늘어났으며 행방불명자수는 977명에 달하였다.

군대와 경찰이 동원되어 구조작업을 벌려 1540여명이 구원되었다.

중국의 티베트자치구에서는 여러명이 사망하고 550여명이 행방불명되었다.

재해발생후 각 구조력량이 피해지역에 진출하여 499명의 현지주민을 안착시키고 관광객 555명을 소개시켰다.

두 나라 피해지역의 행방불명자들속에 외국인관광객들이 많다고 한다.

자료에 의하면 21세기에 들어와 지구온난화에 의해 히말라야산줄기에서 빙하가 없어지는 속도는 그전에 비해 2배이상으로 빨라졌으며 빙하가 녹은 물이 고인 빙하호들이 수많이 생겨났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빙하와 암석이 무너지는 과정에 빙하호들의 방대한 물량이 갑자기 방출되면서 돌발적인 산사태와 큰물이 산생되었을수 있다고 보고있다.

그들은 현재 중국과 네팔사이의 국경지역에 있는 강상류에 산사태에 의해 막힌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는 조건에서 이것이 무너지면 큰물이 또 발생할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하였다.

당신이 가장 관심하는 양로보험 전이 및 접속 문제, 권위적 응답!

최근 많은 네티즌들이 중국정부넷 《@국무원 나의 제언(@国务院 我来说)》코너를 통해 양로보험 전이 및 접속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사회보험관리센터는 의견을 접수한 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응답했다.

1. 양로보험을 타성으로 어떻게 전이하는가?

양로보험권익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타성에서 류동취업하면 본인 양로보험관계를 새로운 보험가입지로 함께 이전하도록 신청할 수 있으며 퇴직이 가까워질 때 본인이 각 성에 보유한 양로보험관계를 대우수령지로 이전할 수도 있다.

각 성의 납부기한(중복납부기한 제외)은 합산계산되며 개인계좌 적립액은 루적계산된다.

타성 이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가지 처리방식이 있다. 온라인으로는 국가사회보험 공공플랫폼, 전국인력자원사회정무서비스플랫폼, 전자사회보험카드, 《휴대폰 12333》App 등 전국적인 통일된 온라인서비스경로를 통해 취급을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은 전입지 사회보험취급기구창구에 가서 취급을 신청할 수 있다.

2. 양로보험 납부중단을 어떻게 피해야 하는가?

양로보험대우확정은 많이 납부하면 많이 받고 오래 납부하면 오래 받는 원칙을 준수한다.

만약 보험가입자가 장기간 납부를 중단하면 루적 납부년한이 상대적으로 비교적 짧아 개인계좌 루적저축액도 상대적으로 비교적 적으며 양로금액수에 영향준다.

동시에 납부년한이 부족하여 연장납부해야 하면 양로금 수령시간에 영향줄 수도 있다.

아래 방법으로 조작하면 양로보험 납부중단을 피할 수 있다.

1) 리직 후 곧바로 새 직장을 찾게 되면 새 직장에 자신을 위해 보험가입수속을 취급해주도록 상기시켜야 한다.

2) 로동법과 사회보험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면 고용단위는 마땅히 고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로동자를 위해 사회보험 등록 및 관련 비용 납부를 신고해야 한다.

3) 만약 리직 후 당분간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유연성 취업자 신분으로 종업원양로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새로운 직장을 찾은 후 단위에서 보험참가수속을 취급하면 된다.

상기시킬 필요가 있는 것은 양로보험관계가 중단되더라도 이미 획득한 양로보험권익에 영향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전에 납부한 비용은 헛되지 않은바 사회보장기구가 개인계좌 저축액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리자를 계속 계산해준다.

3. 도시에 가서 일할 경우 어떻게 접속하는가?

이전에 납부한 것이 도시와 농촌 주민 양로보험이고 이후 도시진종업원양로보험에 참가했다면 이는 양로보험제도간 이동에 해당한다.

도시진종업원양로보험 대우 수령조건을 충족시키면 도시와 농촌 주민 양로보험을 도시진종업원양로보험으로의 이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응하는 계산발급방법에 따라 대우를 산정할 수 있다.

/인민넷-조문판

로봇, 인류의 세계기록 재차 돌파

23일, 국가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빙사대》에서 열린 제2회 세계 휴머노이드로봇경기대회 400m(대형조) 결승전에서 《천공팀》로봇이 38.15초의 기록을 달성했는데 이 성적은 남자 400m의 세계기록보다 빠른 수치이다. 남자 400m 세계기록 43.03초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선수 판니케크가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 세웠는데 이 기록은 이미 10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

/인민넷-조문판



八一南昌起义

1927年春夏，正当国共合作的北伐战争节节胜利、工农运动蓬勃发展之际，国民党右派蒋介石集团、汪精卫集团相继背叛革命，血腥屠杀共产党人和革命群众，轰轰烈烈的大革命失败。

中国共产党在大革命失败的险恶环境中，为了坚持革命，决定独立领导武装斗争，以武装反抗国民党的反动统治。1927年7月12日召开了一次政治局会议，对中央进行了改组，成立由李立三、李维汉、周恩来、张太雷、张国焘五人组成的临时中央常务委员会，停止陈独秀的职务。中共临时中央政治局常务委员会决定以党能够掌握的革命武装在南昌举行暴动，并委派周恩来组织前敌委员会，负责指挥这次起义。

1927年8月1日凌晨2时，南昌起义的战斗正式打响。这次起义由周恩来担任书记的中共中央前敌委员会领导，贺龙、叶挺、朱德、刘伯承等率领中国共产党所掌握和影响下的军队两万余人发起。起义部队计划由贺龙指挥的国民革命军第20军攻击敌第五方面军总指挥部（即旧藩台衙门）、大士院街、牛行车站等区域，叶挺指挥的第11军第24师则负责攻击松柏巷天主教堂、新营房等处守军。然而，由于叛徒向敌军告密，驻守在第五方面军总指挥部的敌警卫团已事先做好了战斗准备。这使得战斗开始后，起义军于该处遭遇了激烈的抵抗。敌军凭借总指挥部的有利地形，居高临下，用机枪火力封锁了起义军进攻的鼓楼门洞通道。

面对敌第五方面军总指挥部的顽抗，起义军指战员奋不顾身，利用楼梯爬上民房房顶与鼓楼，压制住了敌人的火力。同时，贺龙命令第2师第5团从敌军驻地右侧的棕茅巷迂回包抄，与正面部队形成前后夹击之势。经过激烈的营房院内白刃战，起义军最终攻克了敌军总指挥部。

与此同时，其他战场的战斗也全面展开。由叶挺部第72团主攻的贡院敌第3军第23团，因团长不在而失去指挥，在起义军的攻击下企图向城外突围。突围之敌行至南湖边大道时，遭到起义军侧击，无路可走，只好退回贡院缴械投降。驻扎在永和门新营房的守军，则由起义军第72团一部及广东北江农军负责攻击。起义部队提前以打猎为名驻扎在营房内，并依据地形秘密完成兵力部署。战斗打响后，起义军如猛虎扑羊之势冲入守军宿舍，敌军来不及组织抵抗便被全数歼灭和缴械。南昌起义的部队经过数小时激战，8月1日拂晓完全控制了南昌城。起义军肃清、全歼城内守军3000余人，缴获各种枪支5000余支（挺），子弹70余万发，以及数门火炮。8月1日上午，起义的领导者在南昌召开了有国民党中央委员、各省区特别市和海外党部代表参加的联席会议，宣告成立中国国民党革命委员会。

军事方面，革命委员会任命贺龙代理方面军总指挥，叶挺代理方面军前敌总指挥。同时，组成参谋团作为军事指挥机关，由周恩来、贺龙、叶挺、刘伯承等人组成，刘伯承担任参谋长。此外，还任命了叶挺兼代第11军军长，朱德为第9军副军长。8月2日早晨，由聂荣臻、周士第率领的马回岭起义部队胜利抵达南昌，与城内主力部队会合。全军总兵力2.3万余人，武器装备比较齐全，各团均编有机枪连，部分师编有炮兵营。整编加强了政治工作，第11军第24、第25师各团健全了中共党支部，营建立党小组；第20军开始发展党员。各军、师均设党代表并健全政治部，团设政治指导员。

中共前委按照中共中央原定计划，即南下广东，以期恢复广东革命根据地，占领出海口以取得国际援助，尔后再攻取广州或重新举行北伐。8月3日起，起义军分批撤出南昌，沿抚河南下作战。起义军撤离南昌仓促，部队未经整顿，加之酷暑远征，党的领导和政治工作尚未彻底的贯彻，部队出现大批病号、掉队及逃亡现象，减员严重。



8月7日前后，起义军陆续到达江西临川（今属江西抚州），部队在此休息3天。期间，陈毅和其他数百人赶上部队，起义军并正式组成第20军第3师。此时，起义军总兵力已减至约1.3万人。休整后，起义军继续南进。向阻止起义军南下的国民党军队在瑞金、会昌发起战役，起义军共歼敌6000余人，缴获枪2500余支（挺），但自身也伤亡近2000人。

起义军为避免与敌中路军再战，决定变更原定路线，改道经福建省长汀、上杭，沿汀江、韩江南下。9月5日，第20军由瑞金进到长汀，第11军第24师由会昌移到瑞金，随即进入闽西。起义军在这里经过短期休整，于9月中旬进入广东大埔，但后卫第11军第25师，还在长汀至上杭的路上。

9月18日，参谋团在大埔召开军事会议，决定分兵：由朱德率领第11军第25师和第9军部队留守大埔三河坝，牵制敌军；起义军主力则继续南下，夺取潮安（今广东潮州）、汕头。

9月23日和24日，起义军主力先后占领潮安、汕头。但不久在汤坑（今广东丰顺）等地遭到优势国民党军的围攻，作战失利，主力大部溃散。潮汕失利后，起义军余部分为两支。一支是主力溃散后，第11军第24师余部1300余人，与当地农军会合，成为创建海陆丰革命根据地的主力。朱德、陈毅率领的第25师等部自三河坝战役后，于10月7日到达潮州以东之饶平，并与从潮汕撤出的起义军第20军第3师余部200余人会合，成为另一支起义军余部。在得知主力失败后，该部决定经闽粤边界北上，转进赣南。

10月中旬，部队到达赣南安远天心圩时，全军仅剩1500余人，许多师、团领导相继离队，部队濒于溃散。关键时刻，第9军副军长朱德召集军官会议，表示了革命到底的决心，在陈毅、王尔琢等人支持下，初步稳定了部队。10月底，部队到达大庾（今江西大余），利用国民党新军阀李宗仁集团和唐生智集团混战之机，部队再次进行整顿。11月上旬，起义军进至湘粤赣三省交界的江西崇义上堡后，又进行了整训。

1928年1月，朱德、陈毅率领这支起义军余部进入湘南，发动了湘南起义。4月底，部队到达井冈山革命根据地，同毛泽东领导的湘赣边界秋收起义部队会合，组成中国工农革命军第四军（后称红四军），成为红军的重要来源之一。

王亚军巡查并祭扫肃川郡、 文德郡中国人民志愿军烈士陵园

2026年8月13日上午，王亚军大使率中国驻朝鲜使馆和驻朝鲜志愿军烈士褒扬代表处人员赴平安南道肃川郡、文德郡，巡查并祭扫当地中国人民志愿军烈士陵园。

使馆亓菡公使、代表处段照明主任参加，朝鲜外务省亚洲一局部员林光浩、平安南道人民委员会外事局局长金钟午、肃川郡人民委员会文化部长独孤恩哲、文德郡人民委员会文化部部长金革哲等陪同。

丰碑无语，浩气长存。

王大使一行带着最崇高的敬意和无限的追思，在墓碑前整齐列队，高唱国歌，向志愿军烈士墓鞠躬默哀、敬献花篮，献花祭酒。

朝方人员深情讲述了朝鲜战争期间志愿军和当地朝鲜人民团结一心共同抗敌的感人故事，详细介绍了陵园维护和管理情况，并表示金正恩总书记高度重视志愿军烈士纪念设施管理维护工作，强调要传承好鲜血凝成的朝中传统友谊。

长期以来，平安南道各级人民委员会高水平开展志愿军烈士陵园管理维护工作，肃川郡人民委员会还成立了专门机构。每逢7月27日、10月25日等重要纪念日，当地干部民众和青年都会自发赴烈士陵园进行祭扫和献花活动，接受革命传统教育。

朝方将遵照两党两国最高领导人重要共识，以主人翁精神负责任地做好管理维护工作，继承并发扬好朝中传统友谊。

王大使衷心感谢朝鲜党和政府对志愿军烈士陵园的精心管理和维护，并表示平安南道各级领导和人民用实际行动展现了金正恩总书记及朝鲜党和政府对维护好志愿军烈士纪念设施的坚定决心。

习近平总书记和金正恩总书记高度重视志愿军烈士纪念设施的管理维护工作中朝传统友谊的传承发扬。

目前中朝双方正对6处纪念设施进行修缮。

希望双方坚决贯彻落实两党两国最高领导人重要共识，保持密切沟通配合，维护好、管理好、利用好各处纪念设施，让中朝传统友谊发扬光大，推进两国社会主义建设事业，更好造福两国人民。

肃川郡中国人民志愿军烈士陵园位于平安南道肃川郡白岩里，建于1972年12月，葬有烈士400余名，多为在第二次战役中牺牲的烈士。

文德郡中国人民志愿军烈士陵园位于平安南道文德郡，建于1973年4月，安葬着1950年至1951年在西线战斗中牺牲的500余名烈士。

中国驻朝鲜使馆和朝鲜外务省举办友好交流活动



2026年8月13日，中国驻朝鲜使馆和朝鲜外务省在使馆举办友好交流活动。王亚军大使、元菡公使、王从容公参、徐峰参赞，朝鲜外务省副相金名帅、领事局局长孟永林、条约法规局局长金成日、仪礼二局局长金元峰、亚洲一局副局长朴唯一、国际机构局副局长朴正完、仪礼一局副局长金明进等40人参加。王大使表示，在习近平总书记和金正恩总书记英明领导和共同引领下，中朝关系开启崭新篇章。

双方正坚决贯彻落实两党两国最高领导人达成的重要共识，为两国关系发展积势蓄能。

中朝关系站在新的历史起点，面临新的发展机遇，肩负新的时代使命。中方愿同朝方一道，继续发扬精诚团结、密切协作的优良传统，推动中朝关系与时俱进取得更大发展、两国社会主义事业更加繁荣昌盛，更好造福两国人民。

金副相表示，金正恩总书记和习近平总书记两次历史性会晤引领朝中关系迎来新的全盛期，两国各领域合作取得积极进展，向世界彰显了朝中传统友谊的牢不可破和蓬勃生机。

相信在两党两国最高领导人深切关心和英明领导下，朝中传统友好合作关系将取得新的更大发展。

外务省愿同中国驻朝使馆继续加强密切沟通合作，为推动朝中关系发展和两国社会主义建设作出更大贡献。

/中国驻朝鲜大使馆



우크라이나문제해결의 유일한 선택

얼마전 로씨야외무성 부상 미하일 갈루진은 따쓰통신과의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문제해결의 유일한 선택은 특수군사작전을 계속하는것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젤렌스키는 평화를 바라지 않으며 그와 그의 도당은 분쟁을 계속하는것을 권력을 유지하고 이미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유일한 방도로 간주하고 있다고 까밝혔다.

따라서 로씨야에는 군사적방법으로 우크라이나의 비군사화, 비나치스화를 실현하고 이 나라 령토로부터 산생되는 위협들을 제거하기 위한 임무를 계속 수행하는것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로씨야는 제시된 모든 목표와 임무를 완전히 달성할때까지 특수군사작전을 계속해나갈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끝)

이란, 호르무즈해협 립시 항로에 관한 합의 도달

이란 이슬람공화국 TV 방송국의 25 일 저녁 보도에 따르면 이란 외무부 차관 가리바바디가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해협 항로와 관련해 새롭게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페르샤만으로 진입하는 항로는 이란 수역을 경유하고 페르샤만을 떠나는 항로는 오만과 이란의 수역을 경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든 군함은 어떤 경우에도 해당 해협을 통과할 수 없고 오직 상선만 통행이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가리바바디는 이란과 오만간의 이번 합의가 호르무즈해협의 즉각적인 개방을 의미하지 않으며 앞서 언급한 관련 조치는 립시 조치이며 량국은 향후 30~60 일 이내에 새로운 영구 항로를 설정할 데 관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리바바디는 이란의 요구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호르무즈해협은 계속 폐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협 재개방의 전제조건에는 레바논 전선을 포함한 모든 전쟁을 완전히 종식하고 봉쇄를 해제하며 예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것과 더불어 미국이 그동안 리행하지 않은 모든 약속을 전면 리행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가리바바디는 미국이 호르무즈해협의 수뢰를 모두 제거했다는 주장은 《홍보용 거짓말》이며 이란은 해당 지역에 진입하는 미국의 소해함을 타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25 일 이른 시간에 호르무즈해협의 《국제수역》내 모든 수뢰가 이미 제거되거나 폭파되었으며 미국은 이란의 수뢰 설치 행위에 대해 《무관용》정책을 적용하며 새로 수뢰를 설치하는 모든 선박은 즉시 파괴될 것이라고 선포했다.

/延边日报

국가의 핵심리익을 굳건히 수호해나가는 중국

중국은 대만문제를 국가의 핵심리익중의 핵심으로 간주하고있다. 그것이 나라의 주권과 령토완정과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때문이다.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밖에 없으며 대만은 중국의 한 부분이라는것, 《대만독립》과 《두개 중국》을 반대한다는것, 이는 중국의 변하지 않는 원칙적립장이다.

바로 그런것으로 하여 중국은 대만당국의 그 어떤 《독립》시도도 용납하지 않고있다. 얼마전에도 중국은 《대만대표》가 머지않아 벨라우에서 열리게 되는 태평양섬나라연단 지도자회의에 참가하게 된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연단이 하나의 중국원칙을 철저히 준수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대만지역이 국제기구활동에 참가하는 문제에서 중국의 립장은 명백하다고 하면서 태평양섬나라연단 사무국이 대만관련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하여 중국과 연단사이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관계발전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최근 일본의 나가사끼시에서 진행된 《평화기원식》에서의 좌석배치를 놓고 대만이 소동을 일으켰다.

일본주재 《대만대표》는 자기들의 좌석이 외교단구역밖에 배치됨으로써 《국격》과 《지위》가 의도적으로 왜소화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다고 하면서 항의놀음을 벌렸다.

이는 즉시에 중국의 반격을 받았다. 일본주재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대만은 국가가 아니므로 《국격》이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는다,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령토의 불가분리의 한 부분이며 중화인민공화국정부는 전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이다는 원칙적립장을 밝히고 대만측이 제 능력도 가늠하지 못하고 도처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 하는것은 스스로 수치를 당하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중국은 다른 나라들이 대만문제에서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고있다.

지금 일부 서방나라들은 《대만독립》세력의 분렬주의책동을 보고도 못본척하고 오히려 국가의 주권과 령토완정을 수호하려는 중국의 정의의 행동에 대해 시비질하고있다.

중국은 대만문제는 중국의 내정에 속하므로 임의의 외부세력의 간섭도 용납될수 없다고 하면서 이에 강경대응하고있다.

서방나라들이 하나의 중국원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며 분렬주의적인 《대만독립》시도를 묵인하고 지지해주는 행위를 하지 말것을 요구하고있다.

지난 5월 영국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대만문제를 반영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을 때에도 중국은 대만문제는 중국의 내정이고 대만문제를 해결하는것은 중국사람들자체의 일이므로 그 어떤 외부의 간섭도 허용되지 않는다,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자면 반드시 명백하게 《대만독립》을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은 《독립》을 꾀하는 대만당국과 그를 비호하며 지원하는 서방세력의 책동을 저지시키고 나라의 핵심리익을 수호하려는 원칙적립장을 확고히 고수해나가고있다.

AI 대화로봇, 인간보다 설득 잘해

세계 토론대회에서 설득력이 뛰어난 사람들보다 AI 대화로봇의 설득 효과가 더 뛰어나다는 대규모 실험 결과가 발표됐다.

20일, 국제학술지 《과학》은 AI와 인간의 설득력을 비교한 최신 실험을 소개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 헤켄버그 연구원팀의 이번 연구결과는 일전 논문 사전공개 사이트 《아카이브》에 공개됐다.

빅언어모델 기반 AI 대화로봇가 정치적, 사회적 쟁점에서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이 숙달되고 있다. 가짜 계정으로 인터넷 소셜미디어 리용자를 몰래 설득해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친 스위스 취리히대학 연구사례처럼 윤리적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헤켄버그 교수팀은 인간과 AI의 설득력을 비교하기 위한 대규모 실험을 수행했다. 먼저 《영국은 식민지 시절 가져온 문화재를 반환해야 한다.》,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등 영국과 관련된 논쟁적인 정치적, 사회적 주장 10가지가 마련됐다.

실험 참가자 6923명은 각 주장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0~100점으로 응답하고 사람 또는 AI 대화로봇과 대화한 뒤 다시 응답을 기록한다. 설득 효과는 주장에 대한 태도 점수를 얼마나 이동시키는지를 기준으로 평가됐다. 토론은 기본적으로 온라인 실시간 문자 채팅으로 이뤄졌고 참가자들은 상대가 사람인지 AI인지 알지 못한 상태로 대화했다. 주제별 토론시간은 약 14분이다.

영국에 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집한 참가자 132명이 설득에 나선 경우 ChatGPT-4o 모델을 사용해 일반적인 대화를 한 대조군보다 평균 4.7점 높은 설득 효과를 냈다. 설득에 특화된 AI 대화로봇은 이 사람들보다 8.2점 더 큰 효과를 냈다.

설득을 잘하는 일반인을 모은 경우도 결과는 같았다. 일반인 1154명을 모아 3주 동안 4라운드 설득 탈락제를 진행해 상위 10%인 87명을 출전시키고 상금까지 걸었다. 설득을 잘하는 일반인들은 대조군보다 7.2점 만큼 더 태도를 움직였지만 설득 AI는 이보다 5.6점 만큼 더 변화시켰다.

AI는 토론대회 세계 챔피언 4명과 대륙 챔피언 11명이 포함된 인간 토론 전문가 56명보다도 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토론 경력은 8.9년이였다. 인간에게 유리하도록 토론 21일 전에 주제를 알려주고 토론가들이 자신들이 가장 잘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주제를 직접 고르게 했다. 실험 결과 토론 전문가들의 설득 점수는 8.3점으로 인간 집단중에서는 최고 수준을 기록했지만 여기서도 AI의 점수가 4.6점 더 높았다.

세번째 실험에 참가했던 토론 전문가 43명을 다시 불러서 자신의 대화를 복기하고 직접 AI와 연습까지 할 수 있는 총 8시간의 추가 토론 훈련을 진행했다. 토론가들은 전보다 메시지를 약 19% 길게 쓰고 대화마다 검증 가능한 사실을 약 54% 더 많이 제시하는 등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났다. 훈련받은 토론 전문가들의 설득 점수는 9.7점이었지만 AI를 따라잡지는 못했다.

AI 응답 길이와 속도를 인간 만큼만 가능하도록 제한했을 때에야 설득력이 비슷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I의 논리력 자체가 인간보다 뛰어나다기보다는 AI가 사람보다 훨씬 빠르게 많은 사실과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연변일보

일본제국주의의 패망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 2 차세계대전의 결과로 전 세계인류의 가장 악독한 원쑤이던 파쇼독일과 이탈리아가 격멸되었으며 동방에서 제국주의일본이 패망하였습니다.》

파쇼도이칠란드가 패망한후에도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여전히 일제가 기승을 부리면서 침략전쟁을 계속하고 있었다.

일제는 중국전선에서 헤여날수 없는 궁지에 빠져들어갔으며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전선에서도 완전히 수세에 빠져 패전을 거듭하고 있었다.

미국, 영국, 프랑스가 일본에 무조건항복을 권고한 포츠담선언은 1945 년 7 월 27 일에 일본에도 알려 졌다, 일본파쇼정부는 그 다음날 신문들을 통하여 포츠담선언내용을 일제히 보도하면서도 파쇼군부의 요구에 따라 선언을 무시하고 항복이 아니라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립장을 밝히었다.

도이칠란드가 항복한후 3개월이 되어 옴에 따라 소련이 대일전쟁에 참가할 날자가 하루하루 다가 오고 있었다.

미제는 소련이 대일전쟁을 벌리기전에 저들이 일본을 패망시켰다는 인상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본에 원자탄을 투하하기 위한 《작전》을 준비하였다.

당시 미제는 포츠담회담전야에 원자탄폭발시험을 하고 2개의 원자탄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미제는 이 2 개의 원자탄으로 저들의 《강대성》을 《파시》하고 세계인민들을 놀래우려고 하였다.

첫원자탄은 1945 년 8 월 6 일 오전 8 시 15 분경 인구밀도가 조밀한 히로시마에 투하하였다.

그때 히로시마의 시민들은 마음을 놓고 직장에 출근하였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하고있었다.



이때 원자탄이 투하되어 히로시마는 죽음의 도시로 전변되었다.

미제의 귀족같은 만행으로 하여 히로시마시민의 86%에 해당하는 28만여명이 무참히 살해되었고 시안의 모든 건물이 파괴되었다.

미제는 이제 남은 다른 1개의 원자탄을 8월 11일 또다시 일본에 투하할 무서운 흥계를 꾸미었다.

이러한 때인 1945년 8월 8일 소련 정부는 일제에제 선전포고를 하고 8월 9일 대일전쟁에 참가한다는것을 온 세계에 선포하였다.

이렇게 되자 미제는 저들이 일본 본토에 아직 발도 들여 놓기전에 조선인민혁명군과 소련군대가 일제침략군을 종국적으로 파멸시키리라고 생각하면서 극도의 불안과 초조감에 싸이게 되었다.

미제는 일본에 또다시 원자탄을 사용함으로써 일제의 패망이 원자탄의 《덕력》이라는 인상을 조성시켜 제놈들의 《위신》을 추켜 세우며 제 2차세계대전의 승리를 앞당기는 데서 미제가 《결정적역할》을 논듯이 행세하려고 하였다. 1945년 8월 9일 0시. 총 병력 157만여명, 대포 2만 6137문, 탱크와 자동주행포 5556대, 비행기 4995대가 동원된 소련군대가 일제침략자들에 대한 총공격을 개시하였다.

1945년 8월 9일 오전 11시 2분 미제는 나가사키에 두번째 원자탄을 투하하여 20만명의 평화적주민을 살해하는 만행을 또다시 감행하였다.

미제가 일본에 원자탄을 떨어뜨린것은 일제를 패망시키고 제 2차세계대전을 마감짓는데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미제의 두번째 원자탄이 투하된 즉시 파쇼일본이 항복을 한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일본의 파쇼군부두목들은 《두렵지 않다》고 하면서 전쟁을 계속하려고 하였다. 세력을 최종적으로 격멸하고 항복시킨것은 강대한 소련홍군의 대일작전과 중국인민, 조선인민, 월남인민을 비롯한 아시아인민들의 드세찬 항일무장투쟁이었다.

성난 파도처럼 진격하는 소련군대의 공격으로 중국동북땅에 도사리고 있던 일본관동군은 맥없이 무너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8월 9일 소련의 대일선전포고와 때를 같이 하여 조선인민혁명군 전 부대들에 조국광복을 위한 총 공격을 개시할데 대한 명령을 내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은 적들이 《난공불락의 방어선》이라고 떠들던 국경요새들을 단숨에 무너뜨리고 두만강을 건너 조국의 넓은 지역을 해방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혁명군의 다른 부대들은 작전의 보조방향인 백두산동북부와 두만강, 압록강연안일대에서 일제침략군을 격멸하기 위한 전투를 힘있게 벌리었다.



그리하여 8월 15일 일제관동군 제1방면군사령부가 자리 잡고 있던 목단강시가 해방되었다.

미제는 일제침략군에 대한 조선인민혁명군의 총공격으로 하여 전 조선이 광복되게 되자 조선인민혁명군의 진격을 가로 막고 남조선만이라도 저들의 강점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연합군사령관의 《일반명령 제1호》라는것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미제는 38° 선을 경계로 그 이북은 쏘련군대가, 그 이남은 미군이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한다고 하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를 둘로 갈라 놓은 원한의 분계선인 38° 선이 생겨 나게되었다.

몽골, 중국인민해방군도 일제를 격멸하기 위한 총공격으로 넘어 갔다.

일제는 드디어 1945년 8월 15일 무조건항복을 선언하고 9월 2일 항복서에 조인하였다.

일제의 패망과 함께 6년간 계속된 제2차세계대전은 전 세계 민주력량의 빛나는 승리로 끝났다.

프리드리히 엥겔스

(1820~1895)

엥겔스는 과학적공산주의학설 창시자의 한사람이며 맑스의 가장 친근한 전우이며 그의 위업의 충직한 계승자이다.

그는 프로씨야 라인주 바르멘시(오늘의 부페르탈)방직공장주의 집에서 태어났다.

탐구욕이 강한 엥겔스는 중학교시절부터 문학, 예술, 음악, 언어학의 연구에 큰 관심을 두었으며 체육도 즐기었다.

기업가로 키우려는 아버지의 강요에 의하여 중학교를 중퇴하고 브레멘시의 한 상사에서 일하였다.

이 시기에 그는 수많은 외국출판물들을 탐독하였으며 《에프 보스왈드》란 필명으로 착취자들과 위선자들을 폭로하는 글을 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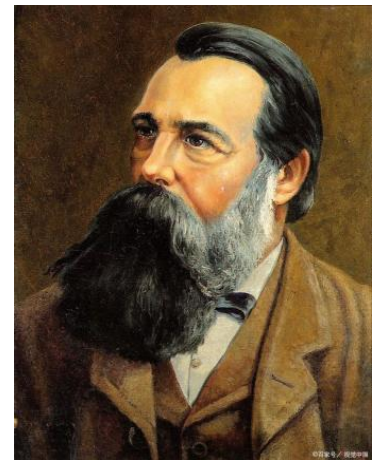
1842년 11월에 영국 만체스터로 가는 도중 《라인신문》사에서 처음으로 맑스와 상봉하였다.

만체스터에서 엥겔스는 영국로동계급의 실태를 깊이 연구하였으며 찰티스트운동의 좌익지도자들과 관계를 가졌다.

1844년 8월말~9월초 도이칠란드로 가던중 빠리에 들러 맑스와 다시 만났는데 이때로부터 그들사이에 혁명적동지애가 맺어 지게되었다.

엥겔스는 맑스와 함께 《신성가족》(1845년)과 《도이칠란드이데올로기》(1845~1846)를 썼으며 거기에서 과학적공산주의리론을 서술하였다.

1845에 발표한 《영국로동계급의 상태》에서 엥겔스는 로동계급의 빈궁과 무권리를 폭로하고 로동계급만이 자신의 해방을 위하여 일떠서게 되는 계급이라는것을 밝혔다.



1845~1847년에 엥겔스는 브뤼셀과 빠리에서 지내면서 자기의 과학연구를 혁명실천과 결합시켰다.

엥겔스는 1846년에 맑스와 함께 《브뤼셀 공산주의자동신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1847년에는 《정의자동맹》을 개조하여 국제로동계급의 첫 정치조직인 《공산주의자동맹》을 창건하였다.

엥겔스는 《공산주의자동맹》의 강령초고로서 《공산주의원리》를 썼으며 그후 맑스와 함께 1848년 2월에 《공산당선언》을 발표하였다.

1848년 벨지끄에서 추방되어 빠리로 자리를 옮긴 엥겔스는 5월에 맑스와 함께 쾰른으로 가서 《신라인신문》을 발간하였다.

1849년 라인지방과 남부도이칠란드에서 무장봉기가 일어나자 엥겔스는 직접 군사행동에 참가하여 뛰어난 군사가로서 작전을 지도하였다.

무장봉기가 실패한후 엥겔스는 스위스로 갔다가 맑스의 제의로 런던으로 자리를 옮겼다.

여기에서 그는 저서 《도이칠란드에서의 혁명과 반혁명》에서 도이칠란드에서의 혁명을 총화하였다.

1850년 11월부터 엥겔스와 맑스가 《자본론》 1권을 탈고할때까지 거의 10년간을 만체스터에서 맑스를 물질적으로 돕기 위하여 아버지 사무실의 서기로 일하였다.

엥겔스는 만체스터에서 매일처럼 편지거래를 하면서 이론, 정치, 경제, 전술 등 여러가지 문제들을 토론하였다.

엥겔스가 군사분야에 대한 연구를 얼마나 심화시켰던지 맑스는 그를 가리켜 《나의 국방부장》이라고까지 하였다.

1864년 엥겔스는 제 1 국제당을 창건하는 사업에 참가하였으며 1870년 9월 런던으로 간후 그곳에서 제 1 국제당 총무위원회 성원으로 사업하였다.

제 1 국제당이 해산된후에도 엥겔스는 맑스와 함께 로동운동을 계속 지도하였으며 특히 맑스가 《자본론》집필에 몹시 분망하던 시기에는 모든것을 맑스를 위하여 바쳤다.

바로 이 시기 엥겔스는 유명한 저작들인 《반두링론》과 《자연변증법》을 썼다.

맑스가 서거한후 국제로동운동은 엥겔스에 의하여 지도되었다.

엥겔스는 맑스가 채 완성하지 못한 《자본론》 2권과 3권의 정리작업에 심혈을 기울여 1885년과 1894년에 각각 발행되게 하였다.

1889년에 엥겔스는 제 2 국제당을 창건하였으며 기회주의자들에 의하여 파묻혔던 맑스의 저서 《고타강령비판》을 출판하였다.

엥겔스는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가족, 사적소유 및 국가의 기원》(1884년), 《루드 위히포이에르바흐와 도이칠란드고전철학의 종말》(1886년), 《프랑스와 도이칠란드에서의 농민문제》(1894년) 등 맑스주의발전에 크게 기여한 저서들을 썼다.

엥겔스는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국제로동운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외국어학습을 정력적으로 하였는데 12개 언어로 자유롭게 말하고 20종의 언어로 된 책을 읽었다.

엥겔스는 1895년 8월 5일 런던에서 서거하였다.

고인의 뜻에 따라 화장한 유해를 넣은 유골함은 엥겔스가 즐기던 휴양지인 이스트해안에 가져다 폭풍이 심한 가을날 파도에 실어 망망대해(도바해협)로 떠내보냈다.



애국명장 리순신

(전호에서 이음)

부패한 리조정부가 왜적들의 침략야망에 대한 정확한 방어대책을 세우지 않아 부산에 침입한 왜놈들은 계속하여 충주를 점령하였다. 충주패배에 놀란 국왕 선조는 4월 30일 서울을 떠나 평양을 거쳐 의주로 피난하였다. 승리에 도취한 왜적들은 5월초에 서울에 침입하였다. 다시 두 방면으로 나누어 6월 중순에 왜적의 한 부대는 평양에, 다른 한 부대는 안변, 함흥을 침입하였다. 왜적들이 국내 깊이 침입해온 결과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엄중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전쟁초기인 1592년 5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조선수군은 침략군에 심대한 타격을 가함으로써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이로 하여 《수륙병진》기도가 파탄될 위험에 처한 일본침략군은 수군강화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1592년 6월말에 3개의 대함대를 새로 편성하여 조선함대를 공격하여왔다.

7월 6일 와끼사까가 거느린 73척으로 편성된 제1함대를 비롯하여 구끼와 가토가 거느린 제2, 제3함대가 바다우를 까맣게 덮으며 밀려들었다.

일제침략군 함대의 목적은 조선남해의 조선함대를 격파하고 저들의 《수륙병진》기도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한편 조선남해의 수군기지들에서 새로운 출전준비를 다그쳐오던 조선수군은 변화된 적정에 대처하여 전투준비를 더욱 철저히 갖추었다. 적함대가 기동을 시작했다는 보고를 받은 리순신장군은 전함대에

출전명령을 내렸다. 7월 6일 조선수군의 제3차 출전이 시작되었다.

리순신장군은 적함대의 대규모침입에 대처하여 출전중에 전라좌우수영과 경상우수영의 수군을 총동원하여 연합함대를 편성하였다. 그리하여 거북선을 선두로 한 조선함대는 90척에 이르렀다.

거북선의 갑판은 파도가 쳐도 물이 들어가지 않게 된 잠수함모양이며 내부배치는 전투원들의 활동, 전투지휘와 명령하달에 매우 편리한 조건으로 갖추어졌다. 거북선의 갑판(철갑)우에는 쇠못과 창을 세워 적들이 기여 오르지 못하게 하였으며 《+》의 좁은 길을 내어 다닐수 있게 하였다.

거북선의 노는 배의 좌우에 각각 10개씩 있는데 노 하나에 4명씩 총 80명의 인원이 노를 저었다.

속도는 최고 7노트였으며 선원수는 148명이었다.

거북선의 내부는 좌우쪽으로 각각 12개의 칸이 아래층으로 배치되어 있다.

거북선의 방어수단은 철갑, 《고슴도치》와 방패이며 공격수단은 화포와 연막, 쇠뿔에 의한 수중공격이다.

기본공격전은 화포전법이다. 거북선의 화력밀도는 대단히 크다.

활, 총, 포를 쏠수 있는 구멍(포혈)은 배의 좌우현측에 각각 22개(한칸에 2개씩), 갑판좌우에 각각 12개, 룡대가리 량 옆에 4개로서 총 72개이다. 이외에도 거북선의 룡의 아가리를 통하여 화염을 뿜으며 포를 쏘게 되어 있다.

당시 다른 나라의 배들은 흔히 돛배로서 군인들과 전투기재들이 로출되어 있었다. 거북선은 군인들과 전투기재들이 배 안에 있었으므로 적의 사격속에서도 노를 안전하게 저어 전투행동을 보장할수 있게 되었다.

려수항을 출발한 조선함대는 7월 8일에 건내량 앞바다에 이르렀다. 이때 건내량에는 와끼사까가 거느린 적의 제 1 함대가 정박 하고있었다. 그런데 건내량은 수심이 얕았으며 해협이 좁아 판옥선과 같은 큰배들이 마음대로 움직일수 없었으며 또한 불리한 정황이 조성되면 적들이 육지에 기여오를수 있었다. 이러한 점들을 타산한 리순신장군은 적함대를 한산도 앞바다에 끌어내어 칠것을 결심하고 조선함대의 주력을 한산도 북쪽기슭에 은폐시켰다. 그리고 5~6척의 판옥선을 선봉대로 삼아 적을 유인하게 하였다.

유인대는 적을 공격할 태세를 취하고 기세를 올리었다. 적들은 조선함대가 적은력량이라고 알고 다급히 맞받아나왔다. 유인대는 급히 배머리를 돌려 뒤로 물러나 건내량의 좁은 물목을 빠져 넓은 한산도 앞바다에 나섰다. 적들은 우리 수군의 유인대를 따라잡으려고 속도를 높이면서 거의 모든 함선들이 한산도 앞바다에 들어섰다. 이 순간을 기다리던 리순신장군은 전 함대에 총공격명령을 내리었다. 이때 유인대의 판옥선이 되돌아서 전투에 진입했고 은폐하고있던 조선함대의 주력은 적함대의 종대와 맞서 학익진 (학이 나래를 편듯 한 전투서열)을 펴면서 일시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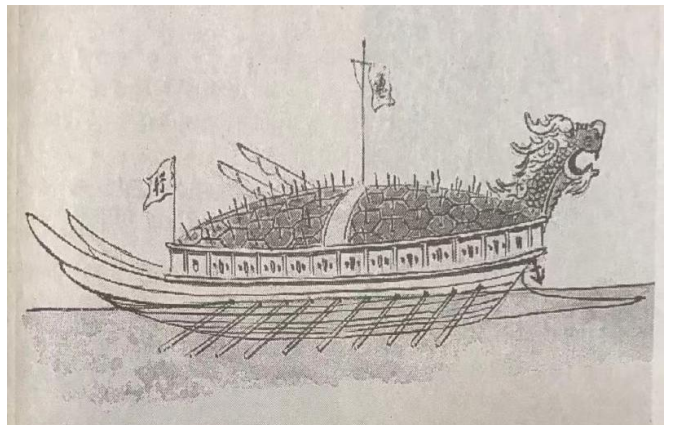
조선함대는 거북선을 선두로 일제히 전진하면서 지자, 현자, 승자 등 각종 총통으로 사격을 퍼부어 전투가 시작된 첫 순간에 적함 3척을 격침시켰다. 조선함대의 맹렬한 공격에 당황한 적들은 도망치려

하였다. 그러나 조선함대는 정면과 양익측으로부터 타격하면서 적함대를 완전히 포위하였다. 그리고 강력한 화포사격을 퍼붓고 들부시는 한편 일부 수군병사들은 적함을 끌어당겨 부서버렸으며 지어는 적함에 뛰어올라 육박전으로 적들을 무자비하게 무찌르고 적선을 불살라버리었다. 그리하여 적함대는 일시에 녹아났다. 적장 와끼사까는 혼비백산하여 전투지휘도 제대로 못하고 구사일생으로 겨우 빠져달아났다. 이 격전에서 조선함대는 적함 73척 가운데서 도망친 14척을 제외하고 포위진에 든 적선 59척을 완전히 격침하고 수천명의 적을 살상하였다. 반면에 조선함대는 인적, 물적손실이 거의 없었다. 이와 같이 한산도해전은 유인, 포위, 총공격전술이 빛나게 실현된 전투였다. 우리 인민은 이 승리를 《한산대첩》 (한산의 큰 승리)으로 일러오고있다.

한산도해전의 승리는 중세기 세계해전사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한다.

한산도해전에서 조선함대가 승리할수 있는 것은 정의의 조국방위전에 떨쳐나선 수군병사들이 애국심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용감히 싸운데 있었으며 리순신장군의 뛰어난 작전과 능숙한 전투지휘에 있었다. 한산도해전에서 조선수군의 승리는 일본침략군의 《수륙병진계획》을 파탄시키고 임진조국전쟁의 판국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하였다.

(다음호에 이음)





말소리 흐름과 문장의 발음

소리매듬은 소리동강안에서 소리토막보다 크게 갈라져나오는 일종의 발음단위이며 억양에 의하여 통일되어있는 하나의 발음덩어리이다.

○ 누구나가// 천리마시대 인간들의 모범을 본받아//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해나가야 한다.

① 소리매듬은 소리동강안에서 소리토막보다 크게 갈라져나오는 특수한 발음단위이다.

ㄱ, 소리매듬은 자기의 독특한 운률적요소도 가지고있지 않으며 고정된 말소리흐름의 구조도 이루고있지 않다.

소리토막은 말소리들이 일정한 규칙에 의하여 배열되고 거기에 소리마루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 덧붙여있는 발음단위이다. 그리고 소리동강은 소리토막들이 련결된것을 억양이라는 운률적요소에 의하여 다듬어 묶어놓은 발음단위이다.

그러나 소리매듬은 발음단위로서의 자기 구조를 따로 가지고있는것이 아니라 소리동강속에서 억양, 주로는 발음행위의 중단에 의하여 구획되는 발음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 소리매듬은 소리동강발음의 편의를 위해 설정되는 운률적인 구획단위에 불과하다.

문장이 길지 않아 발음행위의 중단이 없이 발음되는 경우에는 소리매듬이 설정되지 않을수도 있다. 이처럼 소리매듬은 소리토막과 소리동강의 중간에 놓이면서 소리토막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소리동강을 이루는데 필요한 구성단위로 되는것이 아니라 소리동강에서 구획되어나오는 특수한 발음단위일뿐이다.

ㄴ, 소리매듬은 말하는 목적과 환경, 말하는 사람의 립장과 태도, 문장의 내용에 따라 서로 다르게 설정될수 있다.

같은 문장이라도 어떤 목적과 환경에서, 어떤 태도에서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 소리매듬이 설정되지 않을수도 있고 설정될수도 있으며 이야기내용에 따라서도 소리매듬이 다르게 구획지어질수도 있다.

○ 당의 로선과 정책은(/) 과학이고 진리이다.

위의 문장은 소리매듬이 없이 하나의 소리동강으로 발음할수도 있고 두개의 소리매듬으로 끊어서 발음할수도 있다. 아래의 문장은 네개의 소리매듬으로 발음할수도 있고 일곱개의 소리매듬으로 된 소리동강으로 발음할수도 있다.

○ 오늘 우리 공화국이 지니고있는(/) 높은 존엄과 권위, /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값높은 삶은/ 어느것이나 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존귀하신 존함과 결부되어있다.

C. 소리매듬은 여러개의 층으로 이루어질수도 있다. 소리매듬이 여러개의 층으로 이루어질수 있다는것은 소리매듬안에 보다 작은소리매듬이 포함될수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이때 소리매듬들사이의 계층적인 관계는 끊기의 길이에 의해 표현된다. 보다 웃층의 소리매듬일수록 그아래에 속한 소리매듬보다 끊기가 길게 이루어진다.

② 소리매듬은 억양에 의하여 묶여진 발음덩어리이다.

소리매듬도 억양에 의하여 소리토막들이 하나로 묶여진 발음덩어리이다. 그러나 소리매듬의 억양은 소리동강의 억양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소리매듬을 통일짓는 억양은 이음억양으로서 긴끊기와 끝맺음의 억양을 주요한 표식으로 하는 소리동강의 억양과 차이난다.

소리동강안에서 소리매듬들을 구획짓고 다른 소리매듬과 련결시키는 운률적표현수단은 끊기와 이음의 높낮이선이며 그가운데서도 끊기가 특별히 중요한 작용을 한다. 끊기에 의하여 소리매듬들이 구획되어나오면서 하나의 발음덩어리를 이루며 끊기의 길이에 따라 소리매듬들사이의 계층적인 관계도 나타난다.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반도와 오스트랄리아대륙 사이의 적도선상에 위치하고있는 인도네시아는 17500 여개의 섬(그중 사람이 사는 섬은 6044 개)으로 이루어졌는데 파푸아뉴기니아와 말레이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타이, 필리핀, 오스트랄리아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전국을 3개의 지방특구와 35개의 일급행정구로 나누는데 령역범위는 남북길이 1900km, 동서길이 5500 여 km 이다. 면적은 191만 km² 이고 인구는 2.8억명으로서 세계인구순위 제 4 위이다.

수도는 자카르타이다.

인도네시아어가 국어로 제정되고 그 외에 250 여개의 언어가 통용된다.

제 2 언어로서 정부와 학교교육 및 상업부문에서 영어가 광범히 사용되고있다.

《인도네시아》라는 말은 《인디아의 여러 섬》이라는 뜻이다. 큰 섬으로는 쭈마테라섬, 갈리만탄섬, 자와섬, 술라웨씨섬, 뉴기니아섬 등이 있다.

지형은 산지와 구릉이 위주인데 3000m 이상의 높은 산들이 많다.

특히 자야산은 해발높이가 5029m로서 이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다.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화산이 많다.

대부분 지구가 적도해양성기후의 영향을 받는다. 평균강수량은 3000mm 인데 자와해, 반다해이남의 연안지대들은 열대철바람기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년강수량은 1000~2000mm 이다.

년평균기온은 24~27 ° C로서 사철 무덥고 가물철과 장마철이 있다. 강이 많고 물원천도 풍부하다. 비교적 큰 강은 까뿌아쓰강, 바리또강, 마하캄강, 맘베라모강 등이다.

인도네시아주민은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자와족과 200여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있다. 절대다수의 주민이 아시아대인종 동남아인종에 속한다.

자와족이 전체 인구의 45%, 쏘다족이 14%, 마두라족이 7.5%를 차지한다.

이밖에 미낭까바우족, 바딱족, 부기족, 발리족, 아찌호족, 쏘바와족 등 소수민족들이 있다.

그리고 중국인, 인디아인, 아랍족과 100여만명의 외국거류민들의 후예가 있다.

인도네시아국적을 가진 주민전체를 인도네시아인이라고 한다. 89%의 주민들이 이슬람교를 믿고 기타 주민들이 그리스도교, 힌두교를 비롯한 여러 종교를 믿는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교도가 제일많은 나라이다.

이슬람교도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며 힌두교도들은 소고기를 먹지 않는다,

인도네시아인들은 주민구성이 복잡한데로부터 그 문화와 풍습도 각이하다. 민족성분과 인종, 언어, 종교 등에 있어서 매우 복잡한 구성을 이루고있는데 그것은 이주민들과 외래문화의 영향에 의해 오랜 역사적과정에 형성된것이다.

갱신세증기에 인도네시아에는 이미 자와원인이라는 인류가 살고있었다.

구석기시대에 당시 아시아대륙과 연결되어있던 육로를 거쳐 이주민들이 들어왔다. 기원전 2세기부터 신말라이족이 옮겨왔는데 그 후예들이 오늘의 주민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4세기에 자와섬에 여러개의 왕국이 련이어 세워졌다. 7세기에 쓰리비자야왕국이 서고 상업과 문화가 발전하여 당시 인디아 다음가는 불교중심지로 되었다.

13세기말에 자와에 수립된 마자빠이트왕국의 판도가 인도네시아대부분의 섬과 말라이반도남부까지 확대되었다. 17세기초 네데를란드식민주의자들이 쳐들어와 토지를 장악한데 기초하여 《동인디아회사》를 세우고 무역을 독점하고 1798년에 식민지정부를 설치하였다. 제 2차 세계대전시기 일본에 의해 점령당하였다.

1945년에 독립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세웠다. 독립후 영국과 네데를란드의 침입을 반대하여 무장투쟁을 진행하고 1954년에 인도네시아공화국의 완전독립을 이룩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인구밀도는 극히 불균등하다. 몇개의 큰섬에 사람들이 집중되어 살고있다. 그중 전국령토의 7%로 밖에 안되는 자와섬에 인구의 60%인 1.68억명의 인구가 집중되어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섬으로 되었다.

수도가 있는 자와섬은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의 심장지대이다. 지나친 지하수 사용으로 수도의 일부지역이 4미터나 내려 앉아 현재 수도를 인구수가 적은 깔리만판섬으로 옮기고 있다.

전령토의 59%가 산림이며 목재는 이나라에서 원유다음가는 수출품이다.

자원이 풍부하다. 주요지하자원은 원유, 천연가스, 석탄, 니켈, 망간, 금, 은, 동, 크롬, 아연 등이다. 천연가스, 니켈, 천연고무의 생산량은 세계에서 앞장에 서고있다.

주요수출품은 석탄, 천연가스, 니켈, 목재, 천연고무, 종려기름, 주석, 담배, 차, 커피 등이다.

농업대국으로서 주로 벼, 강냉이, 사탕수수를 재배하며 경제작물은 종려기름, 천연 고무, 커피, 코코아 등이다. 식량은 자급하지 못하고있다.

공업화수평이 높지 못하다. 제조업으로는 방직복장업, 전자, 목재가공, 강철 등이다. 지난 20년간 년평균 5%의 성장률을 기록하고있다. 방직복장업, 전자상품, 자동차제조업이 발달하고있다. 자원이 풍부하고 노동력이 풍부하고 위치도 중요하여 발전에 유리하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독립후부터 언어, 문화, 의식에서 전 인도네시아적인 관념이 커가고있다.

인도네시아인들은 이슬람교의 종교영향을 많이 받아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한다. 대다수 여성들이 더운 날씨에도 긴 목수건을 두르고 바지와 옷을 입고 다닌다.

손으로 밥을 집어먹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주로 자와섬에서 살며 대부분이 농사에 종사하는 자와족의 인구는 1.26억명이다. 자와족의 고전무용극, 음악, 조각, 그림 등 문화예술이 비교적 발전하였다.

인도네시아는 대외적으로 자주독립적인 외교정책을 실시하면서 여러 나라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있다. 빨럭불가담운동을 중시하며 남남협조를 중시하고 있다. 아름다운 김일성화는 인도네시아 초대대통령이었던 수카르노가 1965년 이 나라를 공식방문한 김일성동지께 드린 선물이다.

1964년 4월 16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우리 나라에서 성은 언제부터 써왔는가

우리 나라에서 이름앞에 붙이는 성은 같은 족속, 같은 혈통을 나타내는것이다.

흔히 사람들은 성을 부를 때 《씨》 혹은 《가》를 붙여서 쓴다.

례를 들어 《김》 성을 부를 때 《김씨》, 《김가》라고 한다.

조선사람의 성은 특별한 경우를 내놓고는 언제나 사람에게 붙어다닌다.

실례로 녀자가 시집을 가도 자기의 성을 그대로 쓴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시집을 가면 남자성을 따르는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일본사람들의 성은 자기가 사는 집(가문)에 따라 달라진다.

실례로 같은 친형제일지라도 동생이 외켄에 양자로 가면 그의 성이 달라진다.

우의 사실에서 알수 있는것처럼 조상대대로 성을 써오는 풍습은 나라마다, 민족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 성은 고대로부터 극히 일부 왕들에게서 쓰이였을 것으로 보아진다. 그것은 나라를 세우고 대를 이어 계승하기 위하여서는 나라의 기둥인 임금과 그를 이어나가는 계승자가 있어야 했기때문이다.

아버지의 성을 따라 형성유지되던 우리 나라 첫시기의 국가에서 성은 자못 중요하다. 우리 나라의 첫 국가는 단군조선 즉 고조선이다.

바로 고조선때부터 왕족을 비롯한 특권귀족들은 성을 가지고 있던것으로 보아진다.

옛자료에는 고조선때에 사성(賜姓)을 한 전설도 있는것으로 보아 부분적으로 성을 쓰기 시작하였다고 볼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우리 나라에서 일찍부터 성을 쓰기 시작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삼국사기》를 비롯한 우리 나라의 옛날책들을 보면 삼국시기에는 주로 출신지방(부락 또는 고을)이름을 사람이름앞에 붙여서 피줄 또는 지역적인 소속을 밝히었다.

한편 삼국시기부터 한자성(한식성)을 쓰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왕실이나 귀족들이 간혹 쓴것 같다.

기원전 277 년에 우리 나라의 첫 봉건국가인 고구려를 세운 주몽(동명성왕)의 성은 《고》가였다. 이밖에 고구려에는 우성(큰성)으로서 장, 양, 왕, 두, 오, 리 등이 있었다.

백제에는 왕실의 성인 《부여》외에 사, 연, 협, 해, 진, 국, 목, 백 등 8개의 큰 성이 있었으며 신라에는 왕실의 성들인 박, 석, 김을 비롯하여 리, 손, 정, 배, 설, 남, 안, 최 등 여러 성이 있었다.

삼국시기에 왕실이나 귀족들가운데서 한자성이 점차 보급되어 갔으나 일반 인민들의 대부분은 성을 못가지였다.

옛날책에 《신라에서는 왕실의 성은 김가이며 귀족의 성은 박가이다.

백성들의 성은 없고 이름만 있다.》라고 하였는데 비단 신라뿐아니라 고구려, 백제에서도 백성들은 성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잘 알려진 고구려의 창조리, 밀우와 누유, 온달, 백제의 계백, 도미, 신라의 관창, 술거 등은 모두 성이 없었다.

우리 나라에서 한자성을 널리 쓰기 시작한것은 후기신라의 귀족들이였다.

그후 고려, 리조 시기에 이르기까지 널리 보급되어 갔으나 일반 백성들의 경우에는 리조말기까지도 성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

조선성가운데서 어느 성이 제일 많은가 하는것도 알 필요가 있다.

1930 년에 조선의 8 도강산을 조사장악한데 의하면 사람수가 제일 많은것이 김씨였다. 물론 같은 성씨의 사람이 많고 적은것은 매 시기마다 같을수가 없다.

그러나 김씨는 대체로 예로부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김(金) 씨 다음으로 많은 성은 리(李) 씨였으며 그밖의 큰 성으로는 박(朴) 씨, 최(崔) 씨, 정(鄭) 씨, 조(趙) 씨, 강(姜) 씨, 장(張) 씨, 한(韓) 씨, 윤(尹) 씨, 오(吳) 씨, 림(林) 씨, 신(申) 씨, 안(安) 씨 등을 들수 있다.

비타민의 발명이야기

1535 년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대륙 탐험에 올랐던 자끄 까르띠에(1494 년 ~1557 년)의 탐험대원 103 명이 항행도중 피혈병(비타민 C 부족증)에 걸렸는데 그중 25 명은 대양을 건널 때 이미 목숨을 잃었고 나머지 인원들은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여 캐나다해안에 상륙했다. 그들은 그곳의 원주민들이 가



르쳐준대로 술잎물을 며칠동안 마시고서야 기적적으로 살아날수 있었다.

그후에도 많은 탐험가, 항해가들이 괴혈병으로 바다에 수장되었고(베링그해협을 발견자인 단마르크의 베링그도 1741년에 괴혈병으로 죽었음.)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각기병(비타민 B 결핍증)으로 고통을 당하였다.

페스트와 콜레라, 각기병과 괴혈병, 펠라그라까지 겹쳐 수많은 생명을 빼앗기면서부터 사람들은 이 무시무시한 병의 원인을 해명하는데 달라붙기 시작하였다.

1886년에 네덜란드에서는 당시 자기 나라의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에서 각기병이 만연되고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와섬에 각기병 전문조사단을 파견하였다.

자와섬에 도착한 조사단은 여러명의 각기병환자들을 만나보고 각기병은 전염병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조사단에는 에이끄만(1858년~1930년)이라는 젊은 의사가 있었다.

그는 당시 유명했던 코흐나 빠스퇴르처럼 자기도 각기병을 전염시키는 병원균을 찾아내리라 결심하고 본국으로 가지 않고 그냥 섬에 머물러있기로 결심하였다.

어느날 아침 에이끄만은 병원프락에서 다리를 절면서 간신히 걷는 아주 여윈 닭 한마리를 발견했다.

그는 이 닭을 대상으로 각기병을 연구해보자는 생각이 들어 인차 그 닭을 붙잡아 따로 마련한 상자에 넣었다.

다음날 아침 그가 닭에게 먹이를 주면서 병든 닭을 관찰하고있을 때 지나가던 병원원장이 《닭에게까지 그렇게 좋은 백미를 먹일 필요가 있겠는가. 현미나 주는것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다음날부터는 닭에게 현미를 주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지금까지 변변히 걸지도 못하던 병든 닭이 성성해서 상자안을 오가는것이 아닌가! 이것을 본 에이끄만의 머리에는 번개처럼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현미를 먹인데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현미를 백미로 가공할 때 나오는 쌀겨에 각기병과 관련되는 그 어떤 성분이 들어있다는것이 아닌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에이끄만은 곧 병아리들을 시험적으로 기르면서 각기병의 발생정형을 조사해보았는데 백미만을 먹이는데서는 틀림없이 각기병에 걸린 병아리가 많이 생겼지만 현미를 먹이는데서는 각기병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지어 각기병에 걸린 병아리들에게 현미를 주었더니 각기병이 나왔다. 에이끄만은 곧 자기의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러자 많은 학자들이 각기병연구에 달라붙었다.

드디어 1911년에 생물학자 푼크 (1884년~1967년)가 쌀겨에서 각기병치료에 특효가 있는 무색의 결정성물질 (비타민 B)을 추출하는데 성공하였다.

푼크는 자기가 갈라낸 결정성물질에는 질소가 있으며 그것이 아민에 속한다는것을 확증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 물질을 라틴어의 생명(vita)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와 필수적인(amin)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 아민을 합쳐 비타민(vitamin)이라고 불렀다.

그후 비타민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어 비타민 A, B, C, D, E, F, K, H, PP 등이 발견되었으며 오늘은 그 수가 40여종에 이르게 되었다.



장편소설 림격정

홍명희 원작

홍석중 윤색

(전호에서 이음)

림격정이 들어오고 또 련이어 리봉학까지 들어오자 청석골사람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했다.

군사들도 이제는 곧 백여명의 대부대로 늘어났다.

그들에게 이제는 무서운것이 없었다.

림격정과 리봉학이 새로 들어온데다가 곧 오륙십명의 백정촌사람들이 식구들과 함께 들어왔기때문에 청석골에는 쓰고살집이 부족했다.

그래서 그들은 한동안 골안에 새 집들을 세우느라고 분주했다

오륙십채의 집을 새로 세우는것이 쉬운일은 아니였지만 한두달 역사를 하고나니 얼추 끝낼수 있었다.

청석골에 들어온 사람들속에는 목수도 기와쟁이도 미장쟁이도 구들쟁이도 다 있었기때문에 근처 동네사람들의 신세를 지지 않고도 모두 일을 자체의 힘으로 끝낼수 있었다.

사람들이 새집들이를 끝내고 자리를 잡은지 얼마 안되어 안성에 있는 길막봉의 처가집에서 소식이 왔다.

막봉이 집을 떠난 뒤에 장모는 죽고 그의 안해와 장인은 박선달놈의 종으로 끌려가 죽을 고역을 치르고있다는것이였다.

이 소식을 들은 여러 두령들은 길막봉에게 어서 가서 안해와 장인을 청석골로 데려오라고 말했다.

막봉은 혼자서 안성으로 떠났다.

그는 떠나면서 열흘안으로 꼭 돌아오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막봉은 떠난지 보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불안해진 청석골의 두령들은 작은손가에게 안성에 가서 길막봉의 소식을 알아오라고 하였다.

작은손가가 떠난지 엿새째 되는 날이였다.

그날도 여러 두령들은 앞으로 벌어질 큰 싸움을 위하여 새로 들어온 군사들에게 무술을 훈련시키느라 땀을 흘리고 있었다.

금교역말에 나갔던 서림이 관상쟁이 한사람을 데리고 청석골에 들어와서 여러 두령들에게 관상을 보이자고 말하였다.

언제나 서림을 믿을수 없는 사람으로 의심하고있는 꺾오주가 관상을 보자는 서림의 말에 제일먼저 꺾여진 소리를 내뿔었다.

《홍, 우리네 상판대기를 관상쟁이에게 보이면 무슨 좋은 소리가 나올줄 아오?》

꺾오주의 말끝에 배돌석이 한마디 비꼬았다.

《관상쟁이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자기 상판대기를 실컷 보이구려.》

배돌석의 말끝에 황천왕동 역시 비꼬는 소리로 뒤를 받았다.



《관상쟁이놈한테 재물만 주어보지. 쥐상이든 꿩이상이든 한 삼천년을 살겠다구 귀맛 좋게 씨벌거릴테니...》

그런데 오가만은 관상쟁이를 데려온 서림을 두둔했다.

《그까짓 품들 일도 아닌데 한번 관상을 보면 어떨까? 심심풀이로 한번 보여보세나.》

이렇게 되어 관상쟁이를 도회청에 불러들였다.

바로 이 관상쟁이는 청석골로 들어오는 길과 청석골사람들의 형편을 알아내기 위하여 강음현감이 들여보낸 렴탐군이였다.

이놈의 수상한 행동을 눈치챈것은 오직 지금껏 말없이 앉아있는 림격정뿐이였다.

림격정은 그놈의 진속을 발가내기 위하여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하였다.

이때였다.

길막봉의 소식을 알아보러 갔던 작은손가가 황급히 도회청에 들어섰다.

걱정은 심상치 않은 그의 표정을 보자 우선 군사들에게 관상쟁이를 빈집에 데려다 가두어넣으라고 분부하였다.

걱정은 관상쟁이가 끌려나간 다음에야 작은손가에게 물었다.

《길두령이 어떻게 되었나?》

《큰일났습니다. 길두령이 안성에서 잡혀 옥에 갇혔습니다.》

작은손가는 두령들에게 자기가 안성에 가서 알아온 사실을 자세히 이야기하였다.

막봉은 가사리에 가는 날로 안해와 장인을 만났다.

안해와 장인은 막봉을 따라 청석골에 갈것을 결심하고 박선달 몰래 빠질 기회를 노렸다.

그런데 박선달의 집 행랑채에서 살고있었기때문에 좀처럼 남몰래 빠지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막봉이 가사리에 와서 숨어있는지 이틀만에 가사리와 적가리, 구부내와 보뜰에서 농군들의 민란이 일어났다.

안성군수놈은 어떻게나 흉악한 놈이었던지 박선달같은 놈을 끼고 그곳 농민들의 재산을 뺏아먹다 못해 나중에는 농가의 배나무나 대추나무에까지 값을 붙여 공물을 걷어가는 놈이였다.

일시에 들고일어난 농군들은 처음에 박선달의 집으로 달려들었다.

그런데 이놈은 어떻게 기미를 알아차렸는지 벌써 읍으로 달아나고 없었다.

그러자 농군들은 읍으로 밀려갔다.

이때는 벌써 군수란 놈이 읍내의 장교사령들을 전부 굶어모아서 병쟁기를 나누어준 뒤였다.

농군들은 칼을 든 사령들을 당하지 못해 가사리로 다시 돌아왔다.

그날밤 근 백여명의 장교들과 사령들을 거느린 좌우병방이 가사리에 달려들어 민란에 나섰던 남자들은 물론 늙은이, 아낙네, 어린아이까지 잡아내다가 방망이로 두들겨팼다.

온 동네가 삼시에 피로 물들었다.

어느 농가에 숨어있던 막봉은 놈들의 치떨리는 만행을 보고만 있을수 없었다.

그는 숨어있던 곳에서 뛰어나와 피칠을 하고 돌아가는 장교놈들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맨주먹으로 장교놈들을 여라문놈이나 때려눕혔다.

결국 민란에 참가한 농군들은 뒤전이 되어버리고 길막봉과 백여명의 장교놈들과의 싸움이 되어버렸다.

막봉은 칼과 창을 피하며 계속 놈들을 때려눕혔다.

이때 등뒤로 달려든 수교놈이 쇠몽둥이로 그의 아래다리를 후려갈겼다.

마침내 막봉은 쓰러졌다.

놈들은 그를 결박하여 읍으로 끌고 갔다.

처음에 군수놈은 막봉이가 누구인지 몰랐다.

박선탄이란 놈이 그의 얼굴을 알아보는 바람에 그제야 청석골두령 길막봉이 자기들의 손에 잡혔다는것을 알고 기뻐서 펄쩍뛰었다.

《...길두령과 함께 길두령의 안해와 장인두 옥에 갇히구 민란의 주모자들두 잡혀서 옥에 갇혔는데 옥근처에는 개마새끼 한마리두 얼씬못하게 합디다. 그곳 사람들의 말이 길두령의 안해와 장인은 물론 민란의 주모자들까지두 군수놈이 처리하게 될지 모르나 길두령만은 서울포도청에 끌려가서 죽음을 당하게 되리라구 합디다.》

작은손가의 이야기가 끝났다.

방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돌석이 먼저 침묵을 깨뜨리고 작은손가에게 물었다.

《길두령이 잡혀 갇힌지가 오늘 며칠째가?》

《열흘이 넘습니다.》

《그동안에 혹 죽었는지도 모르겠군.》

《서울에 올라가기 전에 죽으면 안된다구 안성 판가에서 의원을 보내 치료해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돌석은 작은손가의 대답이 끝나자 둘러앉은 두령들에게 말했다.

《오늘밤에라도 곧 안성으로 떠나야 하지 않소?》

그의 말을 오가가 받았다.

《자, 그럼 어떻게 하여야 길두령을 쉽게 구해낼수 있겠는지 의논들을 해보세.》

한옆에 앉아있던 서림이 한동안 조심스러운 눈길로 여러 두령들의 눈치를 살펴보고나서 오가에게 말했다.

《제 생각에는 아무래두 우리가 무작정 안성읍으루 달려드는건 위험할것 같습디다.》

《하여간 안성읍에 들어가지 않구서야 길두령을 구하는 도리가 없지 않소?》

《길두령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우리까지 독안에 든 쥐신세가 되면 어쩍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소?》

《글쎄요. ...우선 황두령을 서울과 안성에 보내서 길두령의 소식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는게 어떨가요?》

서림의 이 말에 여러 두령들이 왈칵 들고일어났다.

《이제 와서 자세히 알아본다는건 뭐요? 길두령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걸 알아보겠단 말아요?》

《알아보는 동안에 길두령이 옥안에서 죽으면 어떻게 하겠소?》

《우린 독안에 든 쥐신세가 되어두 좋소. 길두령을 구해내지 못할 바엔 우리끼리 살아서 무엇하우?》

두령들은 제각기 한마디씩 하여 서림을 몰아세웠다.

곽오주가 서림을 흘겨보며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입씨름들두 하기 좋은가보우. 행여나 제 손톱에 가시가 박힐가봐 벌벌 떠는 사람하구 이야기해야 씨가 먹소? 우리끼리 의논하구 당장이라두 안성으루 떠나면 되는데지.》

이때 지금까지 한옆에 앉아 여러 두령들의 떠드는 소리를 잠자코 듣기만 하던 림격정이 입을 열었다.

《나두 한마다 좀 하겠소. 무작정 우리가 안성으로 달려드는게 위험하다는 말이 일리는 있소, 그렇지만 위험하다구 해서 길두령이 잡혀죽는걸 뻔히 보구 앉아있을수야 없지 않소? 그러니 될수록 위험하지 않을 방도를 찾아서 안성으루 갑시다. 길두령의 목숨을 구해내는것두 중요하지만 그보다두 나는 이 기회에 안성군수놈이나 박선탄같은 놈들을 우리 손으루 없애치워



서 그곳 백성들의 원한두 풀어주구 우리가 청석골에 모인 큰뜻두 세상에 똑똑히 알리는데 좋을것 같소.》

림걱정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콕오주가 소리쳤다!

《형님 말씀이 옳소!》

천왕동과 돌석이 부르짖었다.

《당장 안성으루 떠납시다.》

《그놈들을 그저 우리 손으루 박살을 냅시다.》

다른 두령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걱정의 말에 수긍하는데 오직 서림이만은 말이 없었다.

서림은 위험천만한 불속에 뛰어들고싶지 않았다.

그까짓 길막봉이 잡혀죽건 병신이 되건 그에게는 상관없이 없었다.

그러나 여러 두령들이 한결같이 걱정의 말을 지지해나서자 자기 혼자만 반대해나설수가 없어서 입을 다물고있었다.

다음날 청석골의 두령 여섯사람이 군사넷을 데리고 안성으로 떠났다.

그들은 어물장사로 꾸몄다.

걱정과 유복, 돌석과 오주는 군사 네사람과 함께 어물집들을 쫓고 서림과 봉학은 물주노릇을 하느라고 빈몸으로 따라나섰다.

그들이 지고가는 어물집속에는 두령들과 군사들이 안성에 가서 쓸 병쟁기가 감추어져있었다.

그들은 이틀만에 서울에 와서 그전부터 청석골과 편계가 있는 남소문안의 한온을 만나 길막봉이 아직 안성옥에 갇혀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들은 서울에서 쉬지 못하고 그길로 다시 서울을 떠났다.

일행이 한강에 나와서 나루배를 기다리고있을 때 나루가를 지키는 포도청장교 두놈이 나왔다.

그러나 놈들은 서림이 퇴물을 주자 짐도 들춰보지 않고 강을 건너가게 하였다.

일행은 청석골에서 떠나 닳새가 되는 날 아침에 안성에 들어섰다.

안성읍의 공기는 살벌했다.

곳곳에 장교들과 사령들이 늘어서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짐을 뒤졌다.

일행은 그놈들의 눈을 피해 사람들이 비교적 많이 모인 장거리로 들어갔다.

그들은 그곳에서 길막봉의 소식을 알아보았다.

장거리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 서울에서 한온이 들려준 소식과 다른것이 없었다.

막봉은 민란의 주모자들과 함께 아직 안성옥에 갇혀있었다.

부러진 다리는 그런대로 디디고설만큼 나왔으나 사흘돌이로 군수놈이 잡아내다가 때려서 매맞은 상처자리에 구데기가 끓는다는 말이 있었다.

장교놈들이 눈에 살기를 띠고 개싸다니듯 하는 읍내바닥에서 오래 머무르는것은 위험했다.

그들은 어물장사를 하는척하면서 가사리로 나왔다.

가사리동네 한복판에 있는 큰 기와집이 박선달의 집이라는것을 알게 된 두령들의 눈에서는 불이 펄펄 일었다.

《그놈의 집에 불을 꼭 질러줬으면 좋겠다.》 콕오주가 주먹을 부르짖었다.

《집에 불만 지르면 분풀이가 될테야? 그놈의 손에 망하구 죽은 불쌍한 사람들의 한을 함께 풀어주자면 아주 그놈을 잡아서 대가리를 바사놓아야 해.》

돌석이 이를 부드득 갈았다.

《아무튼 그놈한테서 똑똑히 값을 받아내게 되겠지.》

걱정은 두사람을 쳐다보며 말했다

그들은 구부내 앞내가 버드나무숲에 들어가 일을 꾸밀 계획을 의논하였다.

여러 두령들은 안성판가를 정면으로 들이치고 막봉을 구해내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림은 한사코 반대했다.

아무리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라도 열명이 백명을 공격하는것은 무모한 짓이라는것이였다.

서림은 길막봉을 서울로 압송할 때 길에서 빼내자고 주장했다.

림걱정은 판가를 정면으로 공격하는것이 위험하다고 하는 서림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말대로 길막봉을 서울로 압송할 때 빼낸다면 안성옥에 그대로 남아 있을 민란의 주모자들이 문제였다.

림걱정은 각자가 깊이 생각하여 래일 다시 제책을 의논하자고 말하였다.

날이 저물어갔다.

그러나 열명이나 되는 큰 일행이 병쟁기가 든 짐을 가지고 읍에 들어가 묵을수는 없었다.

림걱정은 일행을 데리고 양주팔이가 있는 칠장사에 가서 하루밤을 보내려고 작정하였다.

안성과 죽산은 서로 이웃에 있는 고을이다.

칠장사는 두 고을의 중간에 있어서 그 거리가 안성에서도 삼십리, 죽산에서도 삼십리였다.

칠장사로 향한 일행이 늦박재 마루턱에 이르렀을 때였다.

갑자기 숲속에서 몽둥이를 든 사람들이 달려나와 앞을 막아서며 호령했다.

《너희들은 웬놈들이냐?》

보아하니 길을 지키는 포도청놈들 같았다.

호령하는 꼴이 같잖아서 걱정이 꺾꺾 웃었다.

여러 두령들도 따라웃었다.

호령하던 놈들은 상대편의 배포유한 웃음소리에 기가 질려 서로 얼굴들만 쳐다보더니 숲속에 대고 휘파람을 불었다.

휘파람소리끝에 숲속에서 새로 서너사람이 나오는데 그들중에는 칼을 든 사람이 섞여있었다.

걱정은 새로 나온 사람들의 차림새까지 보고서야 그들이 포도청놈들이 아니라는것을 짐작했다.

칼을 든 사람은 먼저 나온 사람들에게 한두마디 무엇인가 묻고나서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다.

《이 상판대기에 개기름이 흐르는 놈들아, 어디 가서 또 가난한 사람들의 등껍질을 발가가지구 가느냐? 죽지 않겠으면 짐들을 벗어놓고 게 끓어앉아라!》

걱정은 이 말에 그들의 정체를 알수 있었다.

그러나 한번 장난해볼 생각이 나서 얼른 자기 짐을 벗어놓으며 다른 두령들에게 눈짓을 하였다.

일행이 모두 걱정의 뜻을 짐작하고 짐을 벗어놓는데 눈치없는 팍오주가 두덜거렸다.

《제길, 짐지구는 저깁놈들을 못해내우?》

그러다가 걱정의 입속꾸지람을 받고서야 마지 못해 짐을 벗어놓았다.

걱정은 일부러 기여드는 목소리로 칼을 든 사람에게 물었다.

《짐짝들을 어디로 가져가리까?》 칼을 든 사람은 눈을 부릅뜨며 호령했다.

《이놈들아! 우리가 네놈들의 짐짝이 욕심나서 그러는줄 아느냐? 우리 피루 반들 반들해진 네놈들의 얄미운 상판대기를 한번 몽치루 짓조겨 주고싶어서 그런다.》

《상판대기를 짓밟을 땐 짓밟더라두 짐을 가져다드리리다.》

《이놈아, 시키지 않는짓 그만둬라.》

《수고될것 없소. 내 가져다드리리다.》

걱정은 짐 여덟짝을 두쪽으로 대강 엮어서 량손에 갈라들고 그들이 서있는 곳으로 뚜벅뚜벅 걸어갔다.



몽둥이를 든 사람들은 입을 딱 벌렸다. 칼을 든 사람은 눈을 휘둥그렇게 뜨다 말고 무엇인가 짚어보는게 있는지 대번에 앞으로 달려나오며 물었다.

《혹시 청석골에서 오신 림장사가 아니십니까?》 림걱정은 껄껄 웃었다.

《내가 장난으로 힘자랑을 한번 해봤소. 초면에 어쭙지 않다구 나무라지 마우.》

《제 이름은 광능통입니다! 길막봉의 일루 오셨겠지요?》

걱정은 고개를 끄덕인 다음 다시 덧붙였다.

《이 고을의 군수놈과 량반놈들이 하두 극악하게 논다기에 겸사해서 그놈들의 버릇두 가르칠 작정이요.》

《저희들도 길막봉의 일루 여간 근심이 아닙니다.》

《막봉이를 아시우?》

《알구 모르구가 있습니까? 량반놈들과 칼을 맞대구 싸우는 처지야 서로 같지요.》

《옳은 말이요.》

《지금 어딜 가십니까?》

《칠장사루 가우.》

《칠장사는 왜 가십니까?》

《오늘밤 묵으러 가우.》

《지금 해가 다 저가는데 거길 어떻게 갑니까? 저희들이 있는 곳에 갑시다. 안성에서 일을 하시는 동안 우리에게서 묵으셔두 좋습니다. 그리구 하시는 일을 우리두 힘자라는껏 돕겠습니다.》

걱정은 능통의 호의를 받아들였다.

일행은 능통을 따라 달굴로 들어갔다. 달굴은 청석골과 같이 깊은 산속이기는 하지만 청석골처럼 터가 넓지 못하여 제딱지같은 초막 수십채가 골안을 가득 채우고있었다.

그러나 량반놈들의 침해를 당하지 않고 사는 곳이어서 사는 걸 모양만이라도 가사리의 가난한 농가들보다 나았다.

그날저녁 능통은 청석골두령들에게 자기들이 달굴에 들어오게 된 사연을 이야기하였다.

원래 능통이는 구부내에서 살던 농군이였다.

작년가을에 안성군수놈이 장교들과 사령들을 내몰아 공물이라면서 농량 한톨 남기지 않고 다 훔어가자 농민들은 격분하여 들고일어났다.

그는 뜻이 맞는 벗들과 함께 공물을 걷으러 온 장교놈 다섯을 툽지가 되도록 두들겨패고 그밤으로 식구들과 같이 달굴로 옮겨앉았던것이다.

일년사이에 패에는 사람들이 늘어서 이제는 부하들이 사오십명이나 된다는것이였다.

능통의 말을 들은 림걱정은 그에게 청했다.

《만약 우리가 일을 시작하면 당신이 부하들을 데리구 우리 일을 도와주겠소?》

능통은 대번에 흔연히 응했다.

《아, 그야 다 이를 말씀입니까? 안성판군이 한껏해야 이삼백명밖에 안될겁니다. 여러분들이 판군만 해낸다면 파옥하는건 우리가 담당하지요.》

걱정은 한시름이 덜린 얼굴로 서림에게 말했다

《이왕 이 주인이 한팔을 도와준다니 한번 정면으로 부딪쳐볼 계책을 생각해봅시다.》

《네, 잘 생각해보지요.》

서림도 더는 고집을 부릴수가 없던지 선선하게 대답했다.

(다음호에 이음)



동해명승 명사십리에 사회주의문명을
향유하는 인민의 환희가 물결치고있다.





평양강냉이가공공장

